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2 December 2021
Vol.360

COVER STORY

리처드 용재 오닐 크리스마스 콘서트 '선물'

COLUMN

세련(洗鍊)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가람아트홀

JOHN NOH

YONGJAE
O'NEILL

TAE GUK
MUN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2021. 12. 23 목 ~ 24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재구성/작사/연출 | 김지용 작곡/편곡 | 백현주 지휘 | 이기선 안무 | 이정운

출 연 |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입장료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4인가족 30% 할인(관람연령 만7세 이상) 예매 및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30M "7번가피자" 앞 → 문화회관 주차장 • 출발시간 | 문화회관행 | 월~금 19:00/19:30(공연 있는 날에 한함) | 대연역행 | 공연종료 후(1회 운행)



부산시립합창단 제184회 정기연주회
BUSAN METROPOLITAN CHORUS

Handel's 정격연주기법에 의한 헨델의 "메시아" MESSIAH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George Frideric Handel : a Sacred Oratorio "Messiah"

지휘 이기선
소프라노 석현수
알토 양송미
테너 조성환
베이스 박흥우

연주 부산시립합창단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
(고음악 전문 연주오케스트라)

2021. 12.9(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R석 20,000원, S석 10,000원, A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지휘
김종욱



소프라노
구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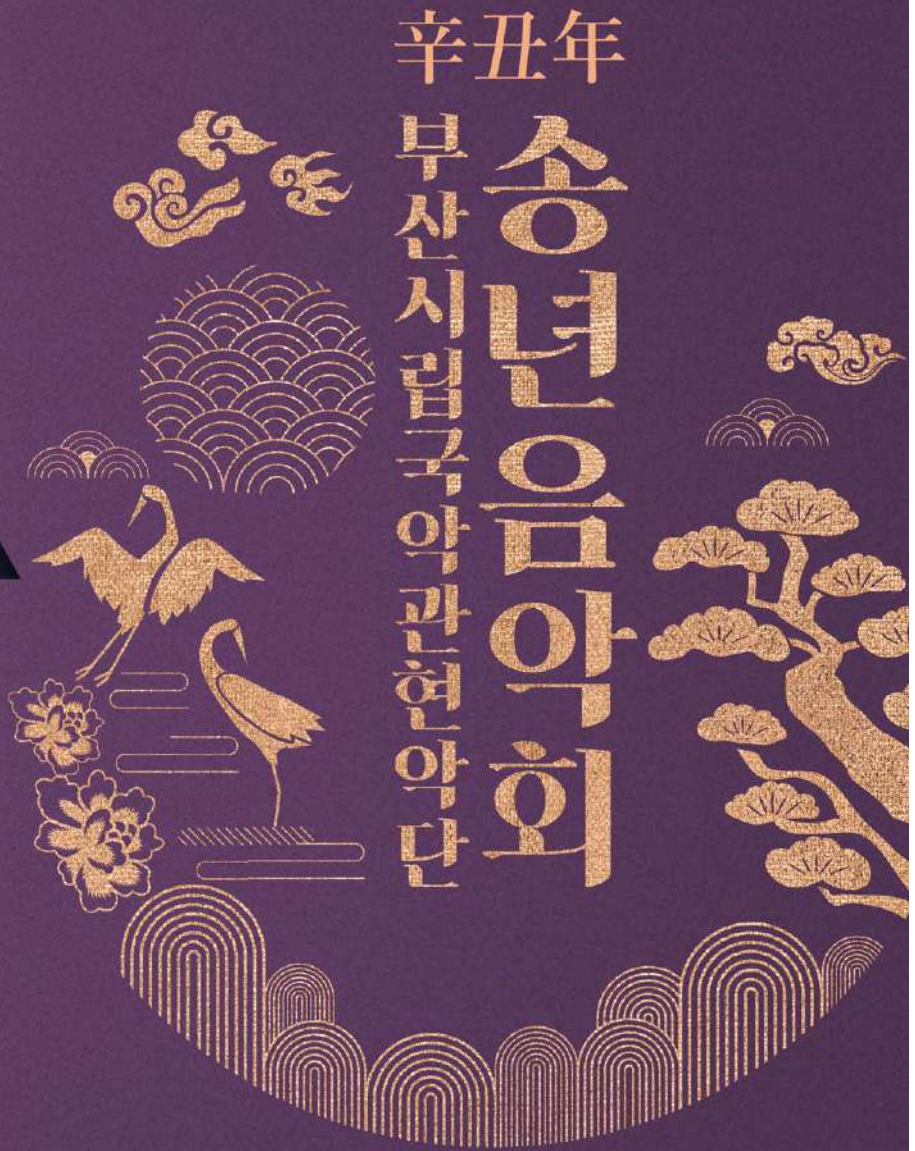
소프라노
신만원



바리톤
박대용



사물놀이
박재현 이주현 최오성 전민수



프로그램

사물놀이 협주곡 "Legacy (선인의 유산)"
Memorial Song
소프라노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춘호 (春曉)"
바리톤과 국악관현악 "사상팔경가 (沙上八景歌)"
소프라노가 부르는 신가악 "새벽" & "해 넘어가기 전 한참은"
국악관현악을 위한 "시간속으로..."

2021. 12. 28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1층) 10,000원 · S석(2층)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 (ARS 1번)

2021 을숙도문화회관

송년음악회

2021.12.7 | 화 | 저녁 7시30분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사회 오정혜

노래 장사익

지휘 홍희철

소생 Regen

2021.12.10 (금) 20:00

12.11 (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연출·안무 이정운
- 음악 정재일 이아람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예매 www.bscc.or.kr

티켓 R석 30,000원 S석 20,000원

문의 051-607-6000



CONTENTS

12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December 2021 Vol.360

2021년 12월호 통권 360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최용부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1년 11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08 Cover Story
리처드 용재 오닐
크리스마스 콘서트 '선물'

12 Column
세련(洗鍊)

14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⑤
가장 많이 그려진 아기와 엄마

18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부산예술문화의 가람
가람아트홀

22 Preview

36 Review

43 Program Guide

61 New Book

62 BSCC News

SUN	MON	TUE	WED
공공 <u>'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u>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2021년도 문화예술아카데미 발표회 예술로 뽐내기 12월 11일(토)-12월 17일(금)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6:00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교육전시팀 (607-6076)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일러스트 드로잉', 'Creative 북바인딩',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등 2021년 문화예술아카데미 수업 수강생들이 선보이는 작품 전시회.		부산시립예술단 고3수험생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 공연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KARTS 무용단 부산 공연 중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생 2021년 제5회 연세사랑 챔 이승병(010-6229-1111)
5 2021 적재 전국투어 '서로의 서로' 17:00 대 전석 11만원/(주)월드쇼마켓(1566-5490) 멜로스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연주회 18:00 중 초대/부산멜로스오케스트라(010-6432-0821) 황여진 비올라 독주회 17:00 챔 전석 1만원/황여진(0502-1919-5676)	6	7 제5회 용마코러스 정기연주회 19:30 중 박근태(010-8546-5018) 테너 김성 귀국독창회 19:30 챔 전석 2만원/아트락(010-5468-4658)	8 신예 유망주 음악회 19:30 중 UKO오케스트라(981-1111) 필로스색소폰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중 임일용(010-8724-1111)
12 Major and minor 정기공연 '다시, 크리스마스' 19:00 중 Major and Minor(010-4658-7963) 나예지 피아노 독주회 17:00 챔 초대/나예지(010-5646-2153)	13	14 부산시립국단 특별공연_실험실 프로젝트 '음악극 나해석' 19:30 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VI' 19:30 중 전석 5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소프라노 강수진 귀국 독창회 19:30 챔 초대/강수진(010-4030-5122)	15 부산시립국단 특별공연_실험실 프로젝트 '음악극 나해석' 19:30 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에델현악사중주단 베토벤 현악사중주곡 전국 연주회 19:30 챔 전석 2만원/아트뱅크(010-5111-1111)
19 2021 송승환의 '난타' 크리스마스 부산 특별공연 14:00, 18:00 중 6만원5만원4만원/PM네트웍스(02-739-8288) 부산거문고악회 제11회 정기연주회 '탐금' 17:00 챔 초대/부산거문고악회(010-8987-4884)	20	21 2021 송승환의 '난타' 크리스마스 부산 특별공연 19:30 중 6만원5만원4만원/PM네트웍스(02-739-8288) 소프라노 신연화 귀국 독창회 19:30 챔 신연화(010-5698-1796)	22 2021 송승환의 '난타' 크리스마스 부산 특별공연 19:30 중 6만원5만원4만원/PM네트웍스(02-739-8288) 제6회 유엔평화기념관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챔 아첸투스(010-8551-1111)
26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17:00 대 12만원·9만원·6만원·4만원 위클리석(070-4190-1289) 2021 송승환의 '난타' 크리스마스 부산 특별공연 14:00 중 6만원5만원4만원/PM네트웍스(02-739-8288) 주수진 피아노 독주회 19:00 챔 주수진(010-5194-5054)	27	2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3회 정기연주회 '후곡년 송년음악회' 19:30 대 1만원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1 송년음악회 '브로드웨이팝 콘서트' 14:00 19:30 중 4만원·3만원 (사)아지무스오페라단(010-8520-4649) 송승환 귀국 기타 독주회 19:30 챔 톤아우레아(02-6015-2844)	29 심정운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챔 전석 2만원/지클리프(010-5111-1111)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1 생을 위한 음악회 19:00 사립팀(607-3136) 연 'HOPE' 20:00 용원(02-746-9306) 열린음악회 19:00 1213)	2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6회 정기연주회 '판타스틱(Fantastic)' 19:30 대 전석 2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벨리씨미 성악연구회 생상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19:30 중 전석 3만원/벨리씨미 성악연구회(010-9281-2662) 영웅환타지아3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음악회' 18:30 챗 전석 1만원/유엔PEC사회적협동조합(627-8402)	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19:30 대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21:00 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양상블 클라쥬 제6회 정기연주회 19:30 챗 1만5천원1만원/양상블 클라쥬(010-6527-0212)	4 (재)부산문화회관 BSCC 시내 오페라 초이스 베를린국립오페라 '맥베스' 15: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메조소프라노 배우향 귀국독창회 17:00 챗 초대/아트락(010-5468-4658)
8 30 8-3087) 기연주회 19:30 5551)	9 제14회 오퍼스피스트 정기연주회 19:00 챗 오퍼스피스트(010-8338-7375)	10 부산시립무용단 제84회 정기연주회 '소생 Regen' 20:00 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온 내한 10주년 기념 공연 '지브리, 재즈를 만나다' 19:00 중 6만6천원5만5천원4만4천원 지누락엔터테인먼트(070-8680-8477)	11 부산시립무용단 제84회 정기연주회 '소생 Regen' 17:00 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1 테너 이산범 귀국독창회 17:00 중 FLOW(010-4434-0627) 2021년도 문화예술아카데미 발표회 '예술로 뽐내기' 17:00 챗 (재)부산문화회관 교육전시팀(607-6076)
5 연_실험실 프로젝트 10 문화회관(607-6000) 연 탄생 250주년 기념 회 시리즈 VII 19:30 1.코리아(442-1941)	16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2회 정기연주회 '시작 아니면 끝' 19:30 중 2만원 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피아트라 앙상블 '실내악,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19:30 챗 피아트라 앙상블(010-8652-6201)	17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0회 정기연주회 'Santa, Jazz & Unplugged' 19:30 대 전석 2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김종완 작품발표회 '섬, 멈춤의 음악' 19:30 챗 초대/김종완(010-7171-2834)	18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수미&이 무지치' 17:00 대 15만원13만원11만원9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1 송승환의 '난타' 크리스마스 부산 특별공연 15:00, 19:00 중 6만원5만원4만원/PMCN네트웍스(02-739-8288) 이윤경 오보에 독주회 19:30 챗 초대/프로젝트무지카(02-6160-6380)
12 스마스부산특별공연 19:30 MC네트웍스(02-739-8288) 창단 정기연주회 19:30 9-0415)	23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1 송승환의 '난타' 크리스마스 부산 특별공연 19:30 중 6만원5만원4만원/PMCN네트웍스(02-739-8288) 동아 신인 음악회 19:30 챗 김정은(010-2176-5563)	24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1 송승환의 '난타' 크리스마스 부산 특별공연 19:30 중 6만원5만원4만원/PMCN네트웍스(02-739-8288)	25 부산솔리스트앙상블 제21회 정기연주회 19:00 대 6만원4만원2만원 부산솔리스트앙상블(010-7315-7352) 2021 송승환의 '난타' 크리스마스 부산 특별공연 15:00, 19:00 중 6만원5만원4만원/PMCN네트웍스(02-739-8288)
19 회 19:30 (02-515-5123)	30 가곡으로 그리는 범일동 풍경 '대향, 이중섭' 19:30 중 전석 3만원/부산오페라연합회(0507-4131-3000) 최경철 제5회 가아금 독주회 '죽흥과 틀' 19:30 챗 최경철(010-8771-9814)	31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중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338-5594)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공공 <u>'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 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u>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고은포토1826 제5회 비엔날레 'Takers vs Makers' 11월 23일(화)-12월 20일(월) 제1, 2전시실 고은포토1826 010-6391-7917 제24회 회원사우회 회원사진전 12월 23일(목)-12월 30일(목) 제1전시실 회원사우회 최상민 010-2564-7583	제38회 부산서화회원전 12월 22일(수)-12월 26일(일) 제2전시실 (사)부산서화회 정미향 010-4562-8704 국제신문사진동우회 제24회 회원전 12월 27일(월)-12월 31일(금) 제2전시실 국제신문사진동우회 조연로 010-5177-221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호두까기인형' 19:30 대 8만원·6만원·4만원/(재) 부산예술단 '떴다! 광대' 소 전석 2만원/부산예술단
5 부산광역시문화상 수상자 합동공연 18:00 소 부산광역시문화상 수상자회(010-8544-1442)	6	7 2021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해피엔딩 오페라 음악제_오페라 콘서트 '사랑의 묘약' 19:30 대 8만원·6만원·4만원 아지무스 오페라단(010-8520-4649) 2021년 제20회 부산재가노인복지대회 14:00 소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508-7001)	2021 부산문화 송년음악회 대 5만원·4만원·3만원/
12 전민경 가야금 독주회 18:00 소 전민경(010-8909-0253)	13	14 2021 디딤 문화공간 가무악 공연 '아름다운 동행' 19:00 대 무료/디딤 문화공간(010-6345-0924)	15
19 쇼뮤지컬 '캐리와 친구들 2022' 11:00, 14:00, 16:30 대 6만6천원·5만5천원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극연구집단 시나위 '뿔' 16:00 소 극연구집단 시나위(010-8733-5944)	20	21	22
26 리처드 용재 오닐 크리스마스 콘서트 '선물' 17:00 대 8만원·6만원·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나의소원 17:00 소 디오락(010-6250-7767)	27	28 부산음악축제 III '오페라 갈라콘서트' 19:00 대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음악축제 IV '성악악' 19:00 대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가 '웃는 남자' 19:00 소 무료(초등학생 이상)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1	2	3	4
회공연_국립발레단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연회 첼린지' 19:30 (010-3585-0115)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9:30 대 8만원 6만원 4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예술단 '뒹다! 광대 연회 첼린지' 19:30 소 전석 2만원 / 부산예술단(010-3585-0115)		2021년도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작품 발표회 19:00 소 신라대학교 무용학과(010-5182-3318)
3	9	10	11
악회 19:30 부산문화(1600-1803)	❖ 부산시립합창단 제184회 정기연주회 '정격연주기법에 의한 헨델의 메시아 대연주회' 19:30 대 2만원 1만원 5천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수고한 당신을 위한 The Classic Show 16:00 소 (주)푸른나무클래식(010-5055-6646)	제 27회 통일염원 한민족 화합 음악회 14:00 대 (사)부산국제장애인협회(988-2427)	2021 꿈의 오케스트라 부산 정기연주회 14:30 대 부산동구문화원(461-0325) 국악댄스컬 '심장에 남는 사람 2021' 19:00 소 몽키즈댄스스튜디오(010-2050-9680)
5	16	17	18
	극연구집단 시나위 '별' 19:30 소 극연구집단 시나위(010-8733-5944)	극연구집단 시나위 '별' 14:00, 19:30 소 극연구집단 시나위(010-8733-5944)	쇼뮤지컬 '캐리와 친구들 2022' 11:00, 14:00, 16:30 대 6만6천원 5만5천원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극연구집단 시나위 '별' 16:00 소 극연구집단 시나위(010-8733-5944)
2	23	24	2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창작뮤지컬 '메이사의 노래' 15:00, 19:30 대 11만원 9만9천원 / (주)하늘이엔티(1688-6675) 나의소원 19:30 소 디오락(010-6250-7767)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창작뮤지컬 '메이사의 노래' 13:00 대 11만원 9만9천원 / (주)하늘이엔티(1688-6675) 나의소원 15:00, 19:30 소 디오락(010-6250-7767)
9	30	31	
상들의 밤' 19:00 (010-34-1295) 있는 날_배시시 명품극장 (관람가능, 사전예매 필수) (07-6000)		2021 노을 연말 투어 콘서트 '노을이 내린 밤' 19:00, 23:00 대 13만2천원 12만1천원 11만원 (썬밤은누리(1566-9621)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쉼 없이 달려온
당신을 위한 음악선물

리처드 용재 오닐 크리스마스 콘서트 '선물'

2021. 12. 26 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비올리스
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오랜 시간 그를
아껴온 한국 관객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무대를 마련한다.

올해 초 제63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
스트 클래식 기악 독주(Best Classical
Instrumental solo)' 부문을 수상하며
벅차오르는 큰 감동을 주었던 용재 오
닐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2월, 한 해
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송
년무대를 가져왔다. 특히 가까운 지인들
을 집에 초대하여 편안한 음악을 들려
주듯 그의 소중한 친구들과 그가 아끼
는 소중한 음악들로 무대를 꾸며왔다.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열리는 올해 무
대에서 용재 오닐은 파블로 카잘스 국
제첼로콩쿠르 우승자 문태국, '펜텀싱
어 시즌3' 준우승 테너 존 노, 그리고
2008년 디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
트라로 결성된 후 국내 대형 클래식 공
연의 주요 연주단체로 활동해온 디토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해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관객들을 위한 음악 선물을 선
사한다. 특히 이번 특별한 무대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정수이자 환상적인 신비
로움을 지닌 바로크 음악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정교하
고 차분한 바흐뿐 아니라 텔레만, 파헬
벨, 코렐리 등 디테일과 생동감을 불어
넣은 정통 바로크 음악을 들려준다.

©youngbokang

Richard Yongjae O'Neill Recital

2021 그레미 어워즈 수상에 빛나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뉴욕 타임즈로부터 '고상하고, 벨벳 같은 음색'으로 찬사를 받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은 이 시대의 위대한 비올리스트 중 한 명이자 한국 클래식 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최고의 클래식 스타이다. 그는 솔로리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지명도 있는 사중주단 중 하나인 타카치 현악사중주단 (Takács Quartet)의 비올리스트로,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와 카메라타 퍼시피카의 상주 비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비올리스트로서는 최초로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던 용재 오닐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학사를, 줄리아드음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동안 런던, 로스앤젤레스, 서울, 유로-아시아 필하모닉 등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앤드루 데이비스, 블라디미르 유롭스키, 프랑수아 자비에르 로스, 레너드 슬렛킨, 야니 네제-세겐 등 저명한 지휘자들과 함께 활동했다. 특히 앙상블 디토와 페스티벌 음악감독으로 실내악 분야에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젊은 관객층을 공연장으로 이끌면서 대중문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팬덤 문화를 클래식 음악계로 가져왔다.

용재 오닐은 유니버설/도이치 그라모폰 아티스트로 2017년까지 10장의 솔로 앨범과 다수의 실내악 음반을 발매, 총 20만장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웠으며, <눈물>(유니버설 뮤직 코리아)과 <겨울여행>(DG)은 더블 플래티넘을, <미스테리오소>(ARCHIV), <노래>(DG)는 플래티넘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초 열린 제63회 그레미 어워즈에서는 '베스트 클래식 인스트루멘탈 솔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2006년과 2010년 '그레미 어워즈' 후보 입성 세 차례 만에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다.

용재 오닐은 뉴욕에 거주하면서 예술에 대한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뉴욕시 의회로부터 명예로운 시민상을 받았으며, 교육자로도 헌신하여 현재 산타바바라 음악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파블로 카잘스 국제첼로콩쿠르 아시아 최초 우승 첼리스트 문태국

차분하고 조용한 말투와 겸손함 뒤에 단 한번도 슬럼프에 빠진 적이 없다는 강철 멘탈이 숨어있는 첼리스트 문태국은 2006년 성정전국음악콩쿠르 최연소 대상, 2007 독일 올덴부르크 청소년 국제콩쿠르 대상, 2011 앙드레 나바라 콩쿠르 우승, 2014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 아시아 최초 우승, 2019년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첼로부문 4위 입상 등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로 현재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연주자이다.

만 4세에 첼로를 접한 문태국은 초등학교 졸업 후 2007년 도미, 줄리아드 예비학교와 보스턴의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수학했으며 현재는 미국 남가주 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2004년 금호영재독주회와 2006년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독주회를 시작으로 한국, 미국, 유럽 등에서 다수 연주를 하며 수원시립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와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으며, 2017년에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활동하며 첼로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선보인 바 있다.



2019년 2월 워너 뮤직 인터내셔널 레이블로 데뷔앨범 <첼로의 노래>를 발매한 문태국은 제2회 SK케미칼 그리움 Grium 아티스트로 선정되었으며, 제1회 야노스 슈타커 상과 제51회 난파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감미롭고 청아한 목소리, 팬텀싱어 3의 히어로 테너 존 노

바로크음악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는 테너 존 노는 세계적인 오페라전문 잡지 <Opera News>에서 '감미로운 테너', '천부적인 테너'로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존 노는 존스홉킨스 대학교 피바디 음악대학 성악과를 장학 졸업하고, 줄리어드 음악원 석사학위 장학졸업과 동시에 카네기홀에서 솔리스트로 데뷔했으며, 예일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는 한편 예일 오페라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오페라 가수로 지난 5년 동안 수십 회 이상의 작품에서 주역을 맡아온 존 노는 대표적으로 Met Live Arts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세계 초연한 '무라사키의 달'에 출연하여 오페라 유망주로 이름을 알렸으며, 테너 솔리스트로서 카네기홀 아이작 스톤 오디토리엄, 뉴욕 머킨홀, 뉴욕 링컨센터, 앨리스 탈리 홀, 브루클린 내셔널 씨더스트 등 유명 공연장에서 세계적인 음악가들과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특히 존 노는 지난해 열린 JTBC <팬텀싱어 3>에 참가하며 '천재 테너'로 불리며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그가 속한 크로스오버 팀 '라비던스'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라비던스'는 최근 미니앨범 <프리즘(PRISM)>을 발매하며 단독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또한 솔로리스트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는 올해 4월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모차르트 '레퀴엠' 무대에 참여했으며, 12월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이끄는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의 '합창' 무대에도 설 예정이다. 최근에는 워너 클래식 레이블을 통해 발매된 첫 정규앨범 <NSQG>가 멀티 플래티넘을 달성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프로그램

1부

- 텔레만/신포니아 스피리투오사(sinfonia spiritiosa)
DITTO Chamber Solo
- 텔레만/비올라 협주곡
리처드 용재 오닐 with DITTO Chamber & Hapsicord
- 비발디/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협주곡 RV 531
리처드 용재 오닐&문태국 with DITTO Chamber & Hapsicord

2부

- 바흐/마태 수난곡 중 'Geduld, Geduld, wenn mich falsche Zungen stechen'
존 노&문태국
- 퍼셀/음악은 잠시동안(Music for a while)
존 노 with DITTO Chamber
- 바흐/마그니피카트(Deposuit from Magnificat BWV 243)
존 노 with DITTO Chamber
- 모차르트/자비의 이름으로 나를 찾지 마시오 (Per pietà, non ricercate, K.420)
리처드 용재 오닐&존 노 with DITTO Chamber
- 비버/파사칼리아 (Passaglia in G minor)
리처드 용재 오닐
- 파헬렐/캐논(Canon)
리처드 용재 오닐 with DITTO Chamber
- 카치니/아베마리아(Ave maria)
리처드 용재 오닐 with DITTO Chamber
- 코렐리/라폴리아(La Folia)
리처드 용재 오닐&문태국&Hapsicord with DITTO Chamber

* 공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리처드 용재 오닐 크리스마스 콘서트 <선물>



테너 존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첼리스트 문태국

더 바로크 나이트

비발디 두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텔레만 비올라 협주곡, 코렐리 라폴리아, 바흐, 헨델 외 | 디토 오케스트라

THE BAROQUE NIGHT

2021. 12. 26(일) 1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부산일보

주관

CREDIA
MUSICARTISTS

티켓

R석 8만원 | S석 6만원 | A석 4만원

예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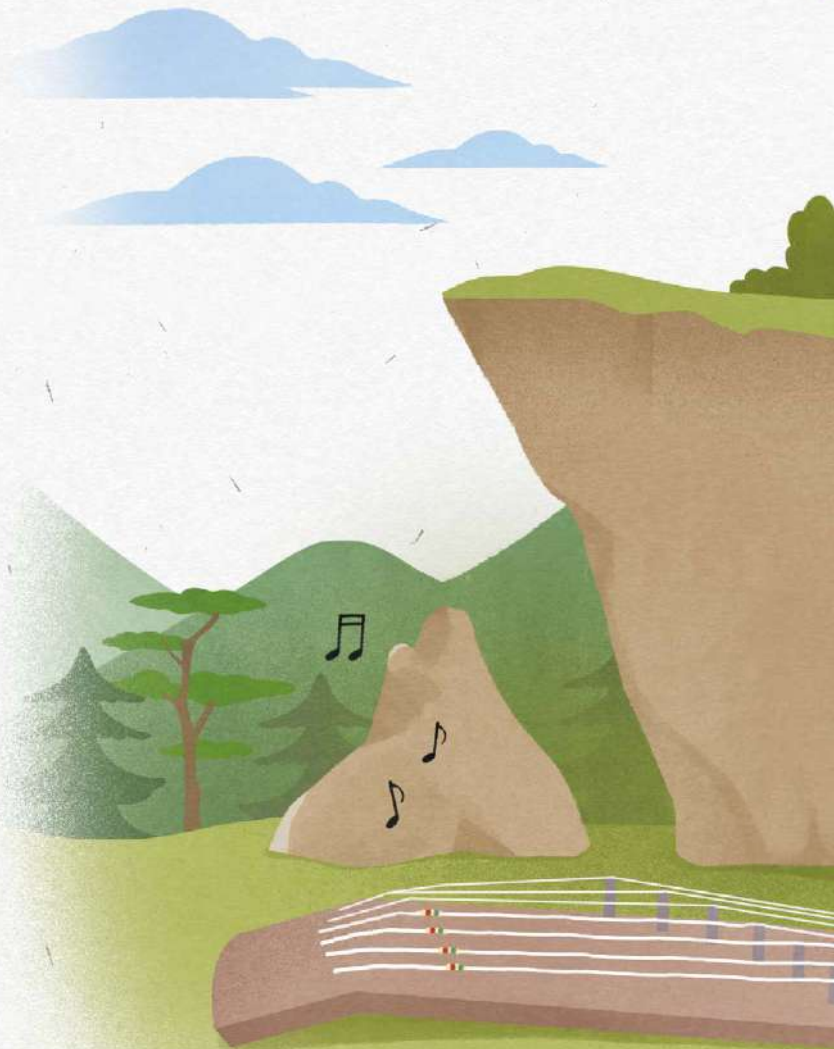
www.bscc.or.kr / 051-607-6000 (ARS 1번)

세련(洗鍊)

권은영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푸른 벼랑 깎아지른 절벽
사방으로 푸른 산 우뚝 솟았는데
맑은 샘물 흰 바위 위로
구비져 흘러가네.
소나무와 삼나무 죽죽 솟은 곳
흰 구름 몽실 몽실 뭉쳐지고
기화(奇花) 이초(異草)는
샘물과 돌 사이에 섞여 자라는구나.
숲 속의 새들 서로 지저귀는데
시내에 부는 바람 얼굴을 스치네
응당 김종손(金從孫)에게 소요관(逍遙冠)을 쓰고
학창의(鶴氅衣)를 입고
유수곡(流水曲)을 연주하게 하여,
그 소리 아득히 멀리 드날려 올리면,
옆에 은일군자(隱逸君子)가 있어
손에는 황정경(黃庭經)을 쥐고
발을 맑은 샘물에 담근 채
돌을 베고 길게 휘파람 불며 들으리라.





한 편의 시라고 해도 좋을 이 음악 비평은 1620년 이득윤이 지은 거문고 고악보인 <현금동문유기(玄琴東文類記)>에 실린 글이다. 당시의 문인이었던 유곤원이라는 사람이 거문고 고수 세 사람의 음악에 대해 평하였는데, 그 중 유심(幽深)함에 능한 김종손의 거문고 솜씨를 비평한 글이다.

당나라 말기 사공도가 지은 <이십사시품(二十四詩品)>은 시의 스물네 개의 풍격을 일종의 시로 표현한 시학 텍스트이다. 김종손의 음악에 대해 평한 유곤원의 글은 ‘한 글자도 쓰지 않고 풍류를 모조리 표현한다’는 이십사시품중 열한 번째 풍격인 함축(含蓄)의 시작 글을 떠올리게 한다.

먼저 깊은 산, 맑은 샘물, 죽죽 뻗은 소나무와 삼나무, 하늘의 뭉개구름, 기화(奇花) 이초(異草), 새소리와 바람으로 자연의 유심(幽深)함을 표현하고, 연주자인 김종손의 덕망 높은 은사(隱士)다운 풍모와 유수곡(流水曲)이라는 구체적 곡명을 들어 음악의 실재를 감각하게 한 다음, 도교의 경서인 황정경(黃庭經)을 쥐고 맑은 물에 발을 담근 채 돌을 베고 길게 휘파람 불며 음악을 감상하는 청중의 모습과 행위에 대한 묘사로 글을 마무리 하면서, 김종손의 거문고 음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모두 함께 유심(幽深)함의 정감을 만들어내는 울림의 주체로서 공명하고 있음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표현해 내고 있다.

이 비평 글 어디에도 연주자와 그의 음악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나 화려한 수식은 없다. 그러나 음악가에 대해, 그의 음악에 대해, 말하지 않고 말하고 있으며, 무심한듯하면서도 치밀한 구성과 맥락으로 음악의 핵심을 싱싱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십사시품의 일곱 번째 풍격인 ‘세련(洗鍊)’, 세련은 불순하고 저속한 것을 제거하고 순수하고 고결한 상태를 만들어 가는 보다 깊고 넓은 의미를 지닌다. 시품의 풍격으로서의 세련에 비추어 볼 때 유곤원의 비평 글은 참으로 세련되었다.

‘유수금일(流水今日) 명월전신(明月前身)’

세련의 풍격을 묘사하는 마지막 글귀이다. 해석의 자유는 독자들에게 드린다.

가장 많이 그려진 아기와 엄마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1 <옥좌에 앉은 성모와 아기 예수>
1280년경, 제단화, 목판에 템페라, 81.5X49cm
미국 워싱턴 국립미술관 소장



쉽지 않았던 한 해가 끝을 향해간다. 그래도 끝없는 어두움에서 해냈던 지난해 이맘때보다는 조금은 끝이 보이는 터널에 서 있는 듯하긴 하다. 2년 전 이맘때 멀리서부터 들려왔던 새로운 질병이 오랫동안 전 세계를 괴롭혀왔지만, 이제는 공존하는 상황을 진단하고 이후를 대비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전보다는 나을 거라는 부푼 희망의 씨앗을 안고 따듯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추운 겨울의 연말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아기와 엄마가 있다. 이들은 역사상 가장 많이 그려진 인물들이기도 하다. 아마 쉽게 떠오를 것이다.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이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보통 '성모자(聖母子)'상이라 불리는 이 이미지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아직 예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지는 못할 때이지만, 처녀의 몸으로 성령을 잉태한 성스러운 여인인 마리아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 그려진 도상(圖像, Icon)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에 대한 숭배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많이 표현되었다. 그래서 자애로운 어머니로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도 근엄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성모자상이 나타나는 오래된 예는 고대 로마 시기 지하에 매장된 카타콤베에서 발견된 벽화일 만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그려져 왔고 시기별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엄격한 기독교 문화가 발달했던 중세 시기 성모자의 모습은 사랑스러운 아기와 어머니라는 이미지라기 보다는 '성스러운'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 터키 지역인 동로마의 비잔틴문화에서 형성되어 화려한 금색이 두드러지는 이 성화(聖畵) **[도판 1]**에서, 성모자는 장중한 건축물처럼 화려하고 무게감 있는 옥좌에 앉아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예수는 몸집이 작을 뿐 제스처나 의복, 자세 등이 성인과 다

- 2 라파엘로, <그란두카의 성모자>
1504년, 나무에 유채, 84×55cm,
이탈리아 피렌체 팔란티나 갤러리 소장
- 3 파르미지아니노, <긴 목의 마돈나>
1534년-40년, 패널에 유채, 216×132cm,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소장



를 바 없이 의젓하며, 성모는 손으로 예수를 감싸고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다소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다. 물론 당시에는 사실적인 묘사나 자연스러운 동세를 그리지 않았기에 부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화려한 의복과 옥좌로 알 수 있듯, 이 성모자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었다.

어찌 보면 생활과 정신, 문화 등 모든 사회 전반이 기독교 중심으로 돌아갔고 엄격한 교리가 지켜지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조금 더 인간적인 표현과 사상에 관심을 가졌던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와서는 성모자의 모습도 변했다. 그중 많은 이들의 사랑을 지금까지도 받는 작품이 있다. 이것은 르네상스 4대가 중 한 명인 라파엘로(Raffaello Sanzio, 1483-1520)의 작품 [도판 2]이다. 어두움 가운데 성모자가 마치 빛나듯 드러나는 작품으로, 빛과 어두움의 효과로 성스러움을 주면서도 아기 특유의 통통하고 양증맞은 모습과 성모 마리아의 우아한 아름다움이 더해져 있다. 그래서 앞선 중세의 성모자보다 더 인간적이고 사랑스러우면서도 현실 속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고요한 존귀함이 느껴진다. 라파엘로는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도 오로지 색채와 분위기만으로 성스러움을 탁월하게

표현하였다. 이 외에도 라파엘로는 성모의 화가라 불릴만큼 여러 점의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파르미지아니노(Parmigianino, 1530-1540)가 아주 독특한 성모자를 그렸다.

일명 <긴 목의 마돈나> [도판 3]라 불리는 이 그림은 그 별명처럼 성모가 비정상적인 만큼 길고 거대하게 그려져 있다. 성모 마리아의 작은 얼굴에 비해서 목부터 몸이 모두 크기가 크고 길게 표현되어 있고, 성모 마리아의 무릎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역시 아기치고는 긴 몸을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의 몸에서 굴러떨어질 듯한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성모자는 이 불편한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 성모의 오른쪽에 있는 네 명의 아이들은 좁은 화면에 서로 밀착되어 서 있고 무거워 보이는 화병까지 들고 있는 반면 성모의 왼쪽에는 둥근 기둥과 함께 멀리 풍경이 펼쳐진다. 그래서 좌우의 균형이 무너져서 불안정해 보인다. 파르미지아니노가 왜 이러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볼록 거울에 자신이 비친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면, [도판 4] 조금 짐작은 된다. 원형의 패널 자체가 하나의 볼록거울이 되어 그 앞에 손은 과하게 커졌고 얼굴은 상대적으로 작게 비치

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독특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전의 르네상스 선배들이 이미 너무나 완벽하게 이룩해놓은 것에서 탈피하여 더 새로운 것을 창조해 보고자 했던 것일지 모른다. 성모자의 모습은 오랜 유럽의 기독교 전통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왔다. 사실 엄마와 아기라는 단순한 소재이지만, 그 속에 담긴 여러 종교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시각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일상 속 엄마와 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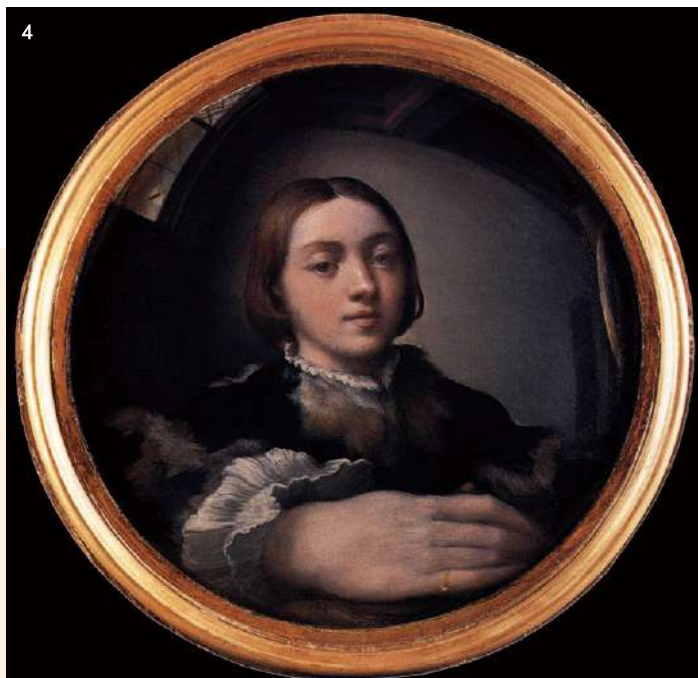
성모자의 모습이 가장 많이 그려진 엄마와 아기의 모습이지만, 누구나 아기였던 적이 있었고 부모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옛 사진을 보며 과거를 추억하기도 하고 현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남겨두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일상적인 아기와 엄마의 모습을 하나의 작품으로 그린 경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역사나 신화 혹은 종교적 내용이 아닌 일상적인 모습을 예술작품에 담는 것을 중요시한 것은 19세기 중후반 인상주의

시기에 본격화되었다. 그중에서도 인상주의를 함께 했던 여성 화가들은 남성과 다른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았고, 그러면서 가까이 만나는 가족을 소재로 삼았다.

베르트 모리조(Berthe Morisot, 1841-1895)는 언니인 에드마가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도판 5]** 요람에서 평온하게 잠든 아기와 그를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은 평온한 일상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듯하다. 어떠한 묵직한 메시지 없이, 그저 따듯한 감정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사실 에드마는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곳곳이 이어 나간 동생 베르트 모리조와 달리, 결혼하면서 붓을 놓았다. 그리고 아내이자 엄마로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아기를 재우고 잠시 평화로운 순간에 놓이게 되면, 문득 자신이 어릴 적 가졌던 꿈에 대한 상념에 빠졌을 것이다. 미소 없이 멍하니 살짝 뜬 눈을 통해 감정을 짐작해볼 수 있다. 비록 성모자만큼 많은

4 파르미지아니노, <볼록거울에 비친 자화상>, 1524년, 나무에 유채, 지름 24.4cm,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박물관 소장

5 베르트 모리조, <요람>, 1872년, 캔버스에 유채, 56×46cm,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사람의 염원을 담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일상적인 엄마와 아이의 모습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에드마와 달리 화가인 자신의 모습을 지지해준 남편의 도움으로 베르트 모리조는 자신의 작업을 계속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출신 인상주의 화가 마리 카셋(Mary Cassatt, 1844-1926)은 비혼주의자로 살았다. ‘비혼’이라는 말이 최근에 생긴 말이지만, 마리 카셋은 실제 결혼하지 않고 화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는 뛰어난 화가가 되기 위해 파리에 유학을 와서 여러 인상주의 화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다졌고, 인상주의를 미국에 소개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화상 뒤랑-뤼엘(Paul Durand-Ruel)과 함께 전시를 잡고 미국인들에게 인상주의 작품을 소개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이루어 나갔다. 바로 주변 인물들의 일상을 담으면서 말이다. 마리 카셋은 비록 자신이 어머니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이와 엄마의 모습을 즐겨 담았다. 우리가 흔히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스냅샷을 찍는 것처럼, 마리 카셋은 일상의 한순간을 포착하듯 그림을 그렸다. 엄마가 아이를 목욕시키는 그림 **[도판 6]**을 보면, 아이는 엄마 무릎에 앉아서 긴장한 듯 한 팔로 엄마를 잡고 있고 엄마는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듯 소곤거리며 한쪽 팔로는 아이를 잡아주고 다른 손으로는 사랑스러운 발을 씻겨주고 있다. 매일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모습일 테지만, 엄마와 아이가 서로를 신뢰하며 기대어 있는 이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엄마와 아기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밀접하다. 본디 서로를 다른 개체로 인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였던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도 그랬고 주변의 가족도 그러하며,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도 그랬다. 이렇듯 누구나 겪었지만, 한 개인에게 있어 유일하며 특별한 관계이기에 의미가 크다. 힘들었던 한해를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엄마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듯 온전히 누군가를 믿고 기댔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연말이 되기를 바라본다.



6 메리 카셋, <아이의 목욕>
1891-1892년, 캔버스에 유채, 100.3×66.1cm
미국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소장

부산예술문화의 가람
가람아트홀
GARAM ART HALL

박나무 자유기고가



가람아트홀은 내가 콘서트라는 걸 처음으로 직접 관람한 곳이다. 30년 전 가객 김광석의 무대, 게스청바지와 부츠, 그리고 앞코를 입고 나왔던 것까지 생생하니 기억난다. 가람아트홀의 150석은 금방 들어찼고, 오히려 낮은 입장을 했던 나는 무대 앞에 앉는 호사를 누렸다. 악천후로 비행기가 뜨지 못해 세션들은 결국 오지 못하고 통기타 한 대와 하모니카, 그리고 그이의 노래소리만으로 채워진 그 날, 그 작은 극장은 지금에 와서도 잊지 못하는 최고의 공연, 최적의 공연장이었다. 함께 공연을 보았던 첫사랑 그이와는 결국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아마도 이 날을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으리라.

1991년 12월 문을 열었으니 올해로 꼭 서른살을 채웠다. 기초지방단체들이 문화회관을 하나둘 열기 시작한 2000년 이전에는 부산의 공연장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그리고 가람아트홀 세 군데가 축을 이루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7년 부산예술음악공연을 서술한 문건에 따르면 문화회관이 256회, 가람아트홀이 30회, 시민회관이 15회를 기록하고 있다. 가람아트홀은 개인이 공간과 기획, 운영을 담당한 것으로 그 노력과 고충이 얼마나 많았을까 짐작도 힘들다. 대한민국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의 데뷔 무대가 가람아트홀. 가람아트홀에서의 공연이 꽤 감동적이었던걸 부산문화회관이 발견하고 공연을 다시 올렸고, 결국 전국적으로 그 목소리를 알리게 된 것. 가람아트홀과 부산문화회관의 안목이





대가수를 키워냈다고 생색 좀 내도 되겠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해경도 가람아트홀 무대가 대중을 상대로 본격적인 공연을 펼쳐내던 곳이었다.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음악가들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데, 가람아트홀의 공도 컸음을 익히 알고 있으리라.

초대 관장인 송유덕 건축사가 10여 년을 곳곳이 버티다가 한명진 대표에게 바톤을 넘겼고, 그동안 아트홀 운영에 여러 고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건물을 매각하라는 유혹도 있었고, 다른 시설로 임대하라는 요청도 술했으나 가람아트홀과 부산예술문화에 대한 애착이 그것들을 이겼다. 국도예술관과 함께 공동운영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10여 년 전이고, 그동안에 가람아트홀로서의 정체성보다는 독립영화상영관으로서의 입지가 굳어진다 싶기도 했다. 사연 많은 국도예술관과의 동거는 3년 전 청산했고, 다시 가람아트홀의 전통과 명성을 되찾기 위한 한명진 대표의 고군분투가 진행되고 있다. 매주 화요일마다 애호가들을 설레게 했던 화요음악회도 다시 본격화되었고, 젊은 음악가들을 초청해 무대와 객석을 무료로 제공하는 영아티스트 초청음악회도 한창이다. 척박한 부산의 공연문화를 지탱해주던 버팀목이 이제 뒤편길로 물러났는가 싶었는데, 건재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으니 그 어찌 반갑지 않을까.

“문화에 대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다. 사촌 형인 송유덕 대표가 큰 공을 들여 설립하고 운영하던 것을 처분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크다.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땀방울이 무대에, 객석에, 분장실에, 조명에 하나하나 묻어있으니, 이 공간이 세대를 넘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젊은 피를 수혈해 공간을 좀 더 활기차고 밝게 운영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깊이 이해하고 도와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 오래된 건물이라 낡고 부서진 곳을 직접 한 대표의 손으로 닦고 조였다. 그랜드피아노와 조명, 음향, 영상에 촬영장비까지 최근 새롭게 정비했다. 객석과 무대는 다시 깨끗해졌고, 당장 연주자와 관객이 들어와도 공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움츠렸으나 이제는 어깨를 펴고 본격적인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첫사랑 그이가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간질간질하다. 가람아트홀이 부산예술문화의 새로운 가람을 열어주길 바라본다.

■ 문의/가람아트홀 010-3855-8604, www.garamarthall.com

다시 가람아트홀의 전통과 명성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한명진 대표





Vn 김언정



Pf 유영욱



M.Sop 배주향



지휘 김수현

Santa, & Jazz Unplugged



Bob Chilcott_Nidaros Jazz Mass
Arr. Mark Brymer_Santa Unplugged

지휘 김수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연출 최준혁 (뮤지컬 배우)

특별출연 바이올린 김언정

피아노 유영욱

메조 소프라노 배주향

엘렉트론 김희은

드럼 김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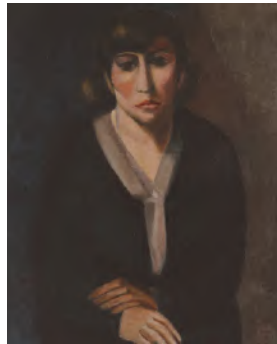
더블베이스 전영주

2021. 12. 17(금)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INVITATION TO THE ARTS

가람아트홀	010-3855-8604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실험실 프로젝트 음악극 나혜석



- **시대를 앞서간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 나혜석의 삶과 사상을 되돌아보는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음악극 나혜석'이 12월 14일과 15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공연은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의 예술 장르 간 통섭에 대한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음악과 텍스트의 결합, 무대와 조명, 영상과의 결합, 무용과 연기의 결합을 통해 관객과 보다 밀접한 거리에서 강렬한 소통을 이루고 싶은 희망을 담고 있다.

1948년 서울 자혜병원에서 무연고 행려병자로 쓸쓸히 죽어간 여자, 그 여인은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진보적 여성 운동가, 문필가로 이름을 날린 나혜석이다. 이렇듯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가 왜 그 당시에는 그토록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을까. 그녀의 활동은 죽음 직후에도 주목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나혜석일까. 도대체 나혜석은 그 긴 세월동안 어디에 파묻혀있었던 말인가. 그리고 누가 파묻었을까.

이번 작품은 나혜석의 삶을 통해 그녀의 존재로 대변되는 당시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여성인권 확대가 사회적인 저항이

나 혹은 기득권과 부딪혀 갈등을 빚었을 때 발생하는 비극적 상황에 대한 고찰이자 오늘날의 현실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부조리를 직시하고 성찰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작곡가 백현주의 곡과 극작가 김지용의 텍스트가 융합되는 무대로, 16명으로 구성된 합창은 관찰자로서 음악에 서사성을 부여하며, 캐릭터에 집중한 텍스트는 오히려 시적인 느낌을 관객들에게 준다. 배우들의 움직임은 국악기 위주의 편성을 만나 한국적 정서를 극대화하고, 동시대성의 추구를 위해 투입한 영상은 '음악극 나혜석'의 의미와 주제의 범위를 대폭 확장시키며, 직선적인 프레임을 활용한 무대 디자인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제도적 굴레를 상징한다.

이번 무대에서 주인공 나혜석 역은 에너지 넘치는 배우 김은옥이 맡아 고난에도 당당하고 거침없었던 그녀의 인생을 무대에 펼쳐 보이며, 나혜석이 쓴 소설 속 인물이자 분열된 자아인 경희 역의 염지선은 이지적이고도 열정적인 인물을 창조해 낸다. 부산시립극단의 중견 배우 이현주와 황창기는 나혜석의 부모로 분해 극적 흐름에 탄탄한 안정감을 준다. 그 외에 비사임 단원인 김신희, 안예은, 강대현, 이수연이 그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이번 무대에서 유감없이 드러낸다.

일 시 12월 14일(화)-15일(수)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15세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1 송승환의 <난타> 크리스마스 부산 특별공연



- 당신의 심장을 두드릴 '난타'가 다시 온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 최근 공연을 제기한 난타가 크리스마스 시즌 기간동안 부산 무대에도 오른다.

한국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린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Non-Verbal Performance) '난타'는 지난 1997년 10월 초연 무대를 가진 후 현재까지 전 세계 58개국 318개 도시, 관객 1,414만 명을 동원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해외 첫 데뷔 무대인 1999년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전회 매진을 기록하며 최고의 평점을 받는데 이어 이곳에서의 호평을 배경으로 2004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뉴욕 브로드웨이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한국 공연계의 획을 그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언어극인 '난타'는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스토리와 몸짓이 중심이 되는 만큼 국적, 나이, 언어, 문화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무계의 감동을 준다. 특히 기존의 언버벌 퍼포먼스극이 리듬과 비트의 끊임없는 반복으로 단조로움을 주었다면 '난타'는 주방이라는 보편적인 공간을 무대로 설정하면서 멋진 악기로 승화된 주방기구의 화려한 연주와 한국 전

통춤과 가락이 어우러지는 환상의 퍼포먼스에 탄탄한 스토리와 드라마틱 요소를 대입시켜 누구라도 신명 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무대가 시작되면 세 명의 요리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즐겁게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배인이 깜짝 등장하고 예전에 없던 결혼식 파티를 준비하라며 요리 목록을 건네고 설상가상 사고뭉치인 매니저의 조카가 낙하산 주방장으로 온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결혼 피로연을 마칠 수 있을까?

'난타'는 한 시간 내에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들 4명의 요리사가 겪게 되는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퍼포먼스로 유쾌하게 펼쳐진다. 특히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주방기구를 이용해 펼치는 배우들의 화려한 몸놀림이 가히 압권으로, 그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또한 '난타'는 관객들이 직접 무대에 오르고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관객참여 공연으로, 관객들은 깜짝 전통혼례의 신랑신부가 되거나 혹은 만두쌔기 게임에 동참하여 다른 관객과 경쟁을 펼치기도 하고, 또 작품 속 배우들과 함께 연주하며 무대의 흥을 돋우기도 하는 등 직접 공연에 참여하여 '난타'만의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일 시 12월 18일(토)-26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26일 공연은 오후 2:00, 월요일 공연없음)

입장료 VIP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5% 할인)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문의** (주)피엠씨네트웍스 02-739-8288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2회 정기연주회 시작 아니면 끝



● 올 한해 ‘균형(balance)’과 ‘정돈(clearance)’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고전부터 현대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2월 16일 제582회 정기연주회 ‘시작 아니면 끝’으로 2021년 마지막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올해 처음 도입했던 ‘올해의 예술가(Artist-in-Residence)’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된 작곡가 김택수의 창작곡 ‘플래시!’를 개작 초연으로 들려준다. 작곡가 김택수가 지난 2008년 대학원 졸업 작품으로 발표한 ‘플래시!’는 그가 작곡가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데 큰 발판이 되어준 작품으로, ‘섬광’ 또는 ‘번쩍이다’라는 뜻을 지닌 ‘플래시(Flash)’처럼 찰나 번뜩였던 아이디어를 9개의 짧은 스케치로 담아낸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9개의 악장과 연주자 20인 안팎의 앙상블 곡으로 작곡되었던 원곡을 개작, 악장 구성을 줄이고 재배치한 후, 관현악으로 새롭게 개작한 곡을 초연 무대로 들려준다.

서울대학교 작곡 학사 및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작곡가 김택수는 코리안 심포니 상주작곡가 및 시러큐스 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현

재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 뉴욕 필하모닉,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오리건 심포니, 샌디에고 심포니, 뉴월드 심포니, 오클랜드 심포니, 국립국악관현악단, 서울시향, 경기필, Ensemble Intercontemporain, Ensemble Modern, New York Classical Players, Mendelssohn Chorus of Philadelphia, Walla Walla Chamber Music Festival, 서울 국제음악제, 평창대관령음악제 등에서 그의 작품이 연주되었으며, 내년인 2022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디트로이트 심포니, National Flute Association Convention 등에서 작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택수는 올해 574:1의 경쟁률을 뚫고 Barlow Prize를 수상했으며 그동안 일신 작곡상, Civitella Ranieri Fellowship, Copland House Residency Award, SCI/ASCAP Commission Competition, The American Prize, 국제 윤이상 작곡상 등을 수상했다. 그의 음악은 농구경기, 커피 등 일상으로부터의 경험과 찻쌀떡 노래, 한국 자장가 등 근·현대 한국, 그리고 산조와 판소리 등 한국 전통음악을 아우르고 있다.

이 곡에 앞서 첫 곡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4번’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일 시 12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베토벤의 성숙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인 1805년 완성된 작품으로, 피아노 협주곡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피아노 협주곡 제4번'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베토벤의 의도가 잘 드러난 곡으로, 오케스트라 주제가 먼저 나오고 솔로 독주가 주제를 이어가는 전통적인 교향곡 형식과는 달리, 피아노의 1주제로 곡을 시작하는 파격을 선보인다.

협연자 최희연은 국내에서 있었던 수많은 공연들 중 금호아트홀에서 4년간 전석 매진의 기록을 남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사이클'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여하는 2005년 올해의 예술상을 받았으며 이후 이미경과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츠요시 츠츠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와 변주곡 전곡, 김수빈, 송영훈, 피터 스템프, 울프 발린, 웬신 양과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전곡으로 또 다른 베토벤 사이클을 완결하고 2018년에는 독일,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해 온 그녀의 2번째 피아노 소나타 사이클을 마치는 등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 명성이 높다. 최희연은 비오티, 카펠, 에피날, 부조니 등 유서 깊은 국제콩쿠르에 입상하면서 국제 무대에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사랑스럽고 유려한 음색과 아름다운 음영을 가진 피아니스트'(워싱턴 포스트 지), '불과 같은 기질의 피아니스트'(라 리베르떼 지), '격정적이고 감정이 충만하며 모든 디테일에서 설득적이면서도 함축성 있게 다듬어낸 연주'(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지)와 같은 호평을 받으며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통영국제음악제 첫 상주음악가를 지냈으며 지난 1999년에는 서울대학교 최연소 교수로 임용된 후 후진양성에도 힘써오고 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시벨리우스의 마지막 교향곡 '교향곡 제7번'을 들려준다. 시벨리우스는 모두 7개의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이중에서도 '교향곡 제7번'은 특이하게도 단악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중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영국의 작곡가 본 윌리엄스로부터는 '역사상 최고의 C장조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오픈 리허설로 만나다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

정기연주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12월 14일에는 '미완성 음악회'를 통해 제582회 정기연주회를 미리 만날 수 있다.

오픈 리허설 형식의 '미완성 음악회'는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음악회로, 최근 들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시그니처 무대로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연주를 앞두고 단원과 지휘자가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모습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지휘자의 음악적 해석, 프레이즈 해석 등 연주자들과의 호흡을 하나로 맞추어 가는 과정을 직접 육성으로 듣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무대와 차별화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최수열 예술감독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제582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인 김택수 작곡 '플래시!!'의 리허설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특히 작곡가인 김택수가 직접 음악회에 참가해 초연을 앞두고 그의 작품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함께 지켜보며 작곡가로서의 작품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택수는 앞서 지난 3월에도 부산시립교향악단 위촉곡 '썬!!' 초연 무대를 앞두고 가진 미완성음악회에도 참석,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지휘자, 단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참석한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창작뮤지컬 **메이사의 노래**



● 새로운 창작 뮤지컬을 발표할 때마다 화제를 모았던 군 창작뮤지컬 ‘메이사의 노래’가 부산을 찾는다.

육군본부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뮤지컬을 기획해왔는데, 이번 ‘메이사의 노래’에서는 UN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재건, 의료, 대민 지원을 담당하는 유엔 평화유지군(국제 연합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맡은 군대)을 소재로 다룬다. 오랜 분쟁 지역인 가상의 국가 카무르와 그와 상반되는 문화를 가진 한국을 배경으로, 카무르에서 나고 자란 소년 ‘라만’이 어린 시절 자신에게 꿈과 희망을 준 ‘메이사’를 찾기 위해 K-POP 오디션에 참가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이 예술을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총과 칼이 아닌 문화로 평화를 구축하고, 파병 군인들의 다양한 역할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희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이번 작품은 제작진 라인업도 화려하여 ‘광화문 연가’, ‘지저스 크리아스트 수퍼스타’,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등의 이지나 연출, ‘명성황후’, ‘모차르트’, ‘레미제라블’ 등의 김문정 음악감독이 의기투합했으며 뮤지컬 ‘더데빌’, ‘그림자를 판 사나이’, ‘영

화 플레이백’ 등의 작곡가 우디 박도 합류하여 화제를 모았다. 특히 ‘메이사의 노래’는 뮤지컬과 K-POP,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만나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군 복무중인 인피니트의 김명수, 엑소의 박찬열, B.A.P의 정대현 등 현직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K-POP 오디션에 참여하는 카무르 소년 ‘라만’ 역을 맡아 다양한 콘셉트의 무대를 소화한다. 여기에 오랜 경력과 내공으로 뮤지컬계에서 믿고 보는 배우로 사랑받는 브래드 리틀, 마이클 리 등이 참여하며 더욱더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 ‘오페라의 유령’, ‘캣츠’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브래드 리틀은 UN평화유지군 사령부 사령관으로 등장하여 카리스마와 가창력으로 존재감을 과시한다.

‘메이사의 노래’는 소재뿐만 아니라, 기존의 군 뮤지컬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팝과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K-POP이 더한 색다른 시도를 펼친다. 레시타티보(*오페라에서 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 형식) 넘버부터 팝, 발라드, 클래식과 국악 사운드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일 시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3:00, 7:30, 25일 토요일 오후 1: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1만원, S석 9만 9천원

문의 (주)하늘이엔티 1688-667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 **영화음악의 거장 히사이시 조의 베스트 컬렉션을 만날 수 있는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가 12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브리 영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히사이시 조는 아직은 무명시절이던 1983년,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의 장편 애니메이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음악을 의뢰받아 영화음악계에 발을 내디딘 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연출한 거의 모든 작품들의 음악을 맡아 하야오의 음악적 페르소나로 자리잡았다. 1991년에는 영화감독 기타노 다케시와도 공동 작업을 시작해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를 시작으로 2002년 ‘Dolls’까지 7편의 영화에서 음악감독을 맡기도 했다. 이번 무대는 히사이시 조의 영화&애니메이션 음악을 60인조 풀편성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영화음악 콘서트로, 이미 서울 롯데콘서트홀,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을 포함해 경기, 대구 등 각 지역에서 수많은 매진기록을 세우며 그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히사이시 조의 첫 애니메이션 음악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시작으로 ‘마녀배달부 키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벼랑 위의 포뇨’, ‘천

공의 성 라퓨타’, ‘바람이 분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애니메이션 음악 외에도 ‘굿바이’, ‘하나-비’, ‘키즈 리턴’, ‘기쿠지로의 여름’ 등 극 영화음악까지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OST ‘Summer’는 피아노&풀 편성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피아니스트 김재원과 WE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연주되며, 영화 ‘굿바이’ OST ‘Memory’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첼리스트 배성우와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대표작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 ‘또 다시’는 오보이스트 고관수의 오보에 연주로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데뷔와 동시에 매진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김재원,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 출연하며 실제 영재로 화제가 된 16세 바이올리니스트 고소현, 전 세계적으로 클래식 색소폰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클래식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 WE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이자 한국 대표 오보이스트 고관수와 첼리스트 배성우가 출연하며, 60인조 풀 편성 WE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히사이시 조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한다.

일 시 12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문의 위클래식 070-4190-1289

2021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세기의 만남! **SUMI JO & I MUSICI**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조수미의 목소리는 신이 주신 최상의 목소리**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Herbert von Karajan)
- **일세기에 한 번 나올까말까 한 목소리**
주빈 메타(Zubin Mehta)
- **이 무지치는 언제나 비슷한 유형의 그룹이 따라갈
모델이 되어 왔다**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 **세계 최고의 챔버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 아르투로 토스카니니(Arturo Toscanini)

조수미 국제데뷔 35주년·이 무지치 창단 70주년

2021년 올해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국제
데뷔 무대 35주년을,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체임버 합주단인 이
무지치가 창단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출신의 음악가들이 창단한 이 무지치는
바로크, 낭만파 음악뿐 아니라 현대음악까지 탁월한 연주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출신의 조수미는 데
뷔 35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기량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이다.

이 시대 최고의 디바, 조수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거쳐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조수미는 나폴리 존타 국제 콩쿠르, 프랜시스
비웃티 국제 콩쿠르, 스페인 비냐스 국제 콩쿠르, 남아프리카 프
레토리아 국제 콩쿠르, 베로나 국제 콩쿠르 등 세계적인 명성의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여 1986년, 이탈
리아 트리에스테의 베르디 극장에서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꾸준한 음악활동
으로 조수미는 1993년 이탈리아에서 그 해 최고의 소프라노에게
수여하는 '황금 기러기 상(La Siola d'Oro)'을 수상했으며, 2008
년에는 푸치니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성악가에게 있어 자랑



스런 명예이자 큰 영광인 '푸치니 상(The Puccini Award)'을 수상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제29회 북경 올림픽에서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안젤라 게오르규와 함께 '세계 3대 소프라노'로 선정되어 독창회 무대를 가지기도 했다.

2016년에는 그녀가 부른 영화 '유스'의 주제가 '심플송'이 그해 4월 이탈리아 도나텔로 어워드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주제가 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2017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1년 동안 뉴욕, 모스크바 등 전 세계에서 '평창올림픽성공기원' 공연에 참여했다. 2018년 3월 평창동계패럴림픽 공식주제가 'Here as ONE'을 개막식 무대에서 선보였으며, 그 해 러시아에서 개최한 세계 최대규모의 '제1회 브라보 어워드'에서 '최고여성연주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조수미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게오르그 솔티, 주빈 메타 등과 함께 주옥 같은 명반을 남겼는데, 1993년 게오르그 솔티와 녹음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그림자 없는 여인'은 그해 오페라 최고 부문에 선정되어 그래미 상(Grammy Award)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2000년 발매된 크로스 오버 <Only Love>는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가 '챔피언'은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 조수미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각인시켜 주었고 2015년에는 처음으로 가요앨범 <그리다>를 발매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기도 했다.

세계적 명성의 체임버 오케스트라, 이 무지치

1951년,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출신의 12명의 축망받는 이탈리아 음악가들은 '평등한 구조의' 독특한 실내악 오케스트라를 창단한다. 바이올리니스트 6명, 비올리스트 2명, 첼리스트 2명, 더블베이스스트와 하프시코드 연주자 각각 1명으로 구성된 이 실내악단은 간단하지만 멋진 의미를 가진 '이 무지치'(Musici di Roma, 이탈리아어로 '음악가들')로 이름을 정하고 단원 12명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기술적 혹은 해석적인 면에 있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휘자가 없는 실내악단을 운영하기로 결정한다. 1952년 3월 30일,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서의 데뷔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앞으로 그들의 빛나는 커리어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그들을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연주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2021년은 이

무지치의 초기 단원들이 처음으로 모인 1951년 이래로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대 최고의 연주자들이 단원으로 거처간 '이 무지치'는 클래식 음악계에 수많은 '최초'와 '최고'의 기록들을 남겨왔다. 1951년 창단되어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챔버앙상블로, 1970년대 세계 최고의 클래식 뮤직비디오를 촬영하였고, 필립스의 첫 번째 클래식 CD는 물론 필립스의 전속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18-20세기의 근원을 이루는 작품들을 레코딩하였다. 특히 지난 1955년 당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비발디의 '사계'를 세계 최초로 레코딩한 음반은 2,500만 장이라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올려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디스크를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판매된 1억 5천만 장의 음반 판매량은 카라얀과 베를린 필하모닉이 레코딩한 베토벤 '교향곡 제5번'과 함께 클래식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수미&이무지치가 들려주는 바로크음악의 진수

조수미 국제데뷔 35주년·이 무지치 창단 70주년이라는 이 특별한 해를 맞아 조수미와 이 무지치는 이번 무대를 바로크음악으로 꾸민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구사하는 이 무지치지만 바로크음악은 이 무지치의 정체성과도 같은 특별한 레퍼토리이며, 특히 조수미도 지난 2007년 국제무대 데뷔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성악가 최초로 바로크 음반을 발매하는 등 그녀에게도 있어서도 바로크는 매우 중요하고도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 무지치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게 해준 프로그램인 비발디의 '사계'를 비롯해 바흐, 헨델, 퍼셀 등 바로크 시대 가장 아름다운 아리아를 통해 바로크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Adieu 2021, Welcom 2022

신축년(辛丑年)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송년무대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그림 정인용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어간다. 부산시립예술단은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을 맞아 지난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시민들에게 위로와 용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송년무대를 펼친다.

특히 오랜만에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으로 선보이는 창작극 ‘크리스마스 캐롤’을 비롯해 정격(원전)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흥겨운 재즈와 신나는 캐롤로 꾸미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한 송년무대 ‘Santa, Jazz & Unplugged’, 그리고 위촉 초연곡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후丑年 송년음악회’ 등 다채로운 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 희망찬 새해를 맞는 벅찬 감동의 순간을 가까운 지인, 가족과 함께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에서 즐겨보자.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12월 23일-24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4인 가족 R석 30%, S석 20% 할인)



2021년 연말을 맞아 부산시립예술단이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로 부산 시민들과 만난다.

찰스 디킨즈 원작 ‘크리스마스 캐롤’은 부산시립예술단 4개 단체가 참여하는 초대형 융복합 콘텐츠 공연으로 극을 이끌어가는 부산시립극단을 비롯해 시립합창단,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가, 연말 가족 관객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이 작품은 송년 가족 관객들을 위한 메이드인 부산작품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획된 무대로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한 이야기 중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현대적으로 각색, 부산시립예술단의 특색을 담은 대형 연합공연으로 첫 선을 보인다.

창작오페라 ‘그 이름 먼구름’을 비롯한 여러 작품으로 호흡을 맞춘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과 작곡가 백현주 콤비가 ‘크리스마스 캐롤’에도 최고의 호흡으로 작업을 이어간다. 김지용 예술감독이 각 예술단의 장르적 특색과 예술적 역량을 담아 재구성/작사/연출에 임하고 작곡가 백현주가 작곡/편곡을 맡았다. 정밀한 해석으로 깊이 있는 음악을 추구하며,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부산시립합창단 이기선 예술감독이 지휘를 맡아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여준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인색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던 욕심 많은 스크루지 영감이 회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크리스마스 시즌 전 세계인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스크루지 영감이 아닌 메리 스크루지 할머니로 각색되었다. 전체 극은 부산시립극단 배우들이 이끌어가고, 총 18곡의 합창 넘버와 감동적인 스토리,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라이브 연주, 스토리와 어우러지는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지역의 객원 배우와 무용수들이 부산시립예술단과 호흡을 맞추며 연합공연의 의미를 살려준다.



김지용

백현주

부산시립예술단은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 움츠렸던 지역 공연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훈훈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소망엽서쓰기로 가족 관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부산시립예술단은 지난 2004년, 2005년 APEC 부산 개최를 기념해 5개 단체가 함께 작업한 총체 가무악극 ‘즐거워라 무릉도원’을, 2015년에는 4개 단체 합동공연 ‘부산맥아리랑’을 선보인 바 있다.

재구성, 작사, 연출 김지용

작곡, 편곡 백현주 지휘 이기선

안무 이정윤

참여단체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제184회 정기연주회

정격연주기법에 의한 헨델의 ‘메시아’ 대연주회

12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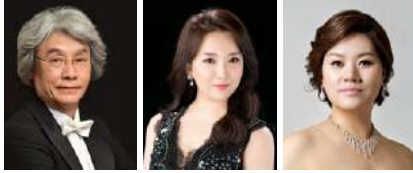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5천원

부산시립합창단은 2021년을 보내며 헨델의 ‘메시아’로 송년무대를 마련한다. 전 세계적으로 연말이면 가장 많이 연주되는 헨델의 메시아는 종교음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음악적 유산의 하나로 꼽히는 명작이다. 바로크 시대 바흐와 함께 양대산맥을 이루는 작곡가 헨델이 1741년 8월 22일에 작곡을 시작하여 24일만에 완성한 대작으로,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로 꼽힌다. 제1부 예언과 탄생, 제2부 수난과 속죄, 제3부 부활과 영원한 생명 등 전체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2부 마지막에는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할렐루야’ 합창이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부산시립합창단은 특히 이번 무대에서 정격(원전)연주로 바로크 시대 ‘메시아’를 재현한다. 정격(원전)연주는 작곡 당시의 역사적 근거에 의한 연주를 말하는데 당대의 악기, 조율 방식과 연주법, 연주 관행과 편성 등을 살려 연주하는 스타일로, 이번 무대에서는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바로크 전문 연주단체인 카메레타 안티과 서울(Camerata Antiqua Seoul)의 연주로 현대악기로는 들을 수 없는 그 시대 원전에 충실한 ‘메시아’를 들려준다.

카메레타 안티과 서울은 ‘옛것(Antiqua)’을 함께 모여 연구하고 연주하는 단체(Camerata)로, 바로크 시대 음악과 악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래 의미를 되살린 최상의 연주를 선사해오고 있다. 창단 이후 16년간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시립합창단들과 함께 디도&에네아스(퍼셀), 리날도(헨델), 오를란도 핀토 파초(비발디), B단조 미사, 요한수난곡, 마태수난곡(바흐), 성모마리아의 저녁기도(몬테베르디), 천지창조(하이든), 마술피리



이기선

석현수

양송미



조성환

박흥우

리, 코지 판 투테(모차르트) 등 수십 편의 바로크와 고전시대 대표작들을 그 시대의 악기와 연주법으로 소개, 호평 받으며 우리나라 음악계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왔다. 특히 리처드 이가, 빈프리트 톨, 료 테라카도 등 세계적인 고음악 대가들과의 협연무대와 정기연주회 '바로크 음악 이야기 I-XVII' 시리즈로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바로크 전문 연주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카메라타 안티파와 서울의 연주와 더불어 소프라노 석현수, 알토 양송미, 테너 조성환, 베이스 박흥우 등 국내 최정상 솔리스트들이 부산시립합창단과 호흡을 맞춘다. 소프라노 석현수는 현재 성공회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및 콘서바토리 외래교수, 알토 양송미는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테너 조성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베이스 박흥우는 가곡전문 연주단체 '리더라이히' 대표로 있다.

지휘 이기선(예술감독) 연주 부산시립합창단, 카메라타 안티파와 서울
솔리스트 소프라노 석현수, 알토 양송미, 테너 조성환, 베이스 박흥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0회 정기연주회

Santa, Jazz & Unplugged

12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2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흥겨운 재즈와 신나는 캐롤이 있는 특별한 송년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수석지휘자 김수현이 지휘하고 서울 코랄컴퍼니,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서울시여성연합합창단, 이투스마스터코랄 안무를 담당한 최준혁이 연출을 맡은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밥 칠콧(Bob Chilcott)의 로맨틱한 재즈 미사곡 '니다로스 재즈 미사(Nidaros Jazz Mass)'와 메조소프라노 배주향의 특별무대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부산챔버오케스트라 수석, 뮤즈앙상블, BS 오퍼스앙상블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언정의 독주,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특별한 무대 'Santa, Jazz & Unplugged'로 성탄의 흥겨움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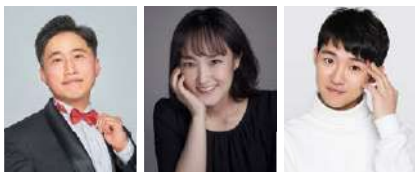
영국의 작곡가이자 지휘자, 가수로 활동해온 밥 칠콧은 어려서부터 킹스 칼리지 합창단, 케임 브리지 합창단에서 노래했으며, 런던 왕립음악대학에서 합창지휘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가 노르웨이 니다로스 대성당 합창단의 헌정곡으로 작곡한 '니다로스 재즈 미사'는 재즈의 색채가 돋보이는 곡으로 콘트라베이스, 드럼, 피아노와 함께 풍부한 사운드를 선사하며 재즈합창의 매력을 전해 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재 한국국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사)부산광역시음악협회 회장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유영욱, 드럼주자 김영훈, 베이스리스트 전영주의 재즈트리오 반주에 맞춰 소년소녀합창단의 순수하고 맑은 목소리로 들려 준다. 배주향은 이번 무대에서 Erik Satie의 'Je te veux(당신을 원해요)', Adolpe



김수현

배주향

김언정



유영욱

김희은

최준혁

Adam의 'Oh, Holy Night(오, 거룩한 밤)'를 들려준다.

2부 무대에서 만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언정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및 미국 인디애나 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Chicago Civic Orchestra 단원,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 챔버오케스트라 수석, 뮤즈앙상블, BS오퍼스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유영욱과 함께 하이페츠의 편곡으로 더욱 유명해진 마누엘 폰세의 'Estrellita'와 헝가리의 민속무곡 차르다시(Czardas)을 바탕으로 작곡된 몬티의 '차르다시'를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다양한 캐롤곡으로 꾸며진 마술 같은 크리스마스 이벤트 'Santa, Jazz & Unplugged'로 단원들의 안무와 함께하는 신나고 행복한 시간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송년무대에서는 건반 두개를 상하로 배치한 2단 오르간으로, 폭넓은 음역과 기교의 연주가 가능하여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음향을 재현할 수 있는 엘렉톤 연주로 보다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에서 엘렉톤을 연주할 김희은은 숙명여자대학교 기악과 및 수원대학교 음악대학원 반주과, 이태리 Accademia Musicale Pescarese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엘렉톤 전문 반주자로 활동 중이다.

지휘 김수현(수석지휘자) 연출 최준혁

연주 김언정(바이올린), 유영욱(피아노), 김희은(엘렉톤), 김영훈(드럼), 전영주(베이스)
특별출연 메조소프라노 배주향(부산시립합창단 상임단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3회 정기연주회 **辛丑年 송년음악회**

12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보내고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위촉 창작초연곡으로 송년무대를 준비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통해 부산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신명넘치는 우리 음악으로 그려낸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종욱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신민원, 소프라노 구민영, 바리톤 박대용,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클래식 및 대중음악과 국악의 접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민영치, 현재 이음사운드 대표로 있는 이정면,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오세일,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서울국악관현악단 대표 및 상임지휘자로 있는 김성경, 수원대학교 작곡과 교수로 있는 박영란 등 작곡가 5인의 창작곡을 소개한다.

첫 곡으로는 민영치의 사물놀이 협주곡 'Legacy(선인의 유산)'으로, 경쾌한 사물놀이 가락으로 첫 무대를 힘차게 연다. 민영기 작곡가에 있어 우리 고유의



김종욱

구민영



신민원

박대용



사물놀이

장단은 마치 유산같은 존재로, 하나의 장단을 떼오를 때마다 장단이 가진 고유성을 재연구하고 그것을 작품 속에서 현대 사람들과 현대 음악에 잘 어울려 줄 수 있도록 담아냈다. 1악장 ‘희(喜)’, 2악장 ‘노(怒)’, 3악장 ‘애락(哀樂)’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전학수(장구), 이주현(뿔과리), 최오성(북), 박재현(징)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이어지는 작곡가 이정면의 ‘Memorial Song’은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많은 활동을 펼쳤던 故 이준호의 대표적인 곡인 생황협주곡 ‘풍향’과 국악관현악 ‘축제’, 그리고 해금독주곡으로 널리 알려진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를 관현악 앙상블로 작곡한 곡이다. 작곡가 오세일의 소프라노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춘효(春曉)’는 신라의 대문호 최치원이 해운대 동백섬에서 지었다고 추정되는 9개의 한시 중 하나인 ‘春曉(봄새벽)’를 기반으로 구성된 곡으로, 시에서 느껴지는 정서와 분위기를 작품 속에 담고 있다. 협연자 신민원은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미국 맨해튼음대 석사과정 졸업, 맨해튼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다수 오페라에서 주연으로 활동했다.

작곡가 김성경의 바리톤과 국악관현악 ‘사상팔경가(沙上八景歌)’와 소프라노가 부르는 신가악 ‘새벽’ & ‘해 넘어가기 전 한참은’은 바리톤 박대용과 소프라노 구민영이 각각 협연한다. ‘사상팔경가’는 낙동강 하류 사상(沙上)의 아름다운 절경으로 손꼽히던 팔경(八景)을 주제로 작사, 작곡한 곡이며, ‘새벽’ & ‘해 넘어가기 전 한참은’은 성악협주곡 형식의 국악창작곡인 신가악을 주제로 발표한 3집 음반 ‘빛의 나그네’에 수록된 작품이다. 바리톤 박대용은 동아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탈리아 Giuseppe Nicolini 국립음대, Luigi Boccherini 국제아카데미, C.E.D.M 국제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칠레아 국제성악콩쿠르, 엔나 국제성악콩쿠르 2위 입상한 바 있다. 소프라노 구민영은 한양대학교 성악과와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S. Cecilia) 국립음악원 졸업을 졸업하고 Premio Enrico Segattini 국제콩쿠르 특별상, Musica Sacra 국제종교성악콩쿠르 로마지역청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마지막 곡으로는 작곡가 박영란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시간속으로...’를 들려준다. 한국 근대사 속의 부산의 공간과 시간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로 향하는 부산의 끝없는 무한질주를 묘사한 작품으로, 부산의 역동성과 미래지향성을 표현하기 위해 일렉트릭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세트 등 타 장르의 악기를 포함하여 부산만의 독특한 융복합적인 색채를 소리로 그려내고 있다.

지휘 김종욱(수석지휘자)

협연 소프라노 신민원, 구민영, 바리톤 박대용,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전학수, 이주현, 최오성, 박재현)

오페라 아리아에 실려온 영국 내전의 역사 이야기

콘서트오페라
‘청교도 I PURITANI’

◆ 정두환 문화유목민, 음악평론가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 기원을 위한 2021년 부산오페라워크가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그리고 금정문화회관으로 그 열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11월 10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벨리니(1801-1835) 최고의 오페라인 <청교도 I PURITANI>가 열렸다.

오페라 <청교도>를 보다 재미있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영국 내전의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는 스코틀랜드 출신인 찰스 1세 때의 이야기로 영국 의회와의 생각 차이와 전통 가톨릭에서 영국국교로의 종교적인 생각의 차이 등 내외적인 문제로 왕정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이 일어나고, 올리버 크롬웰이 공화정을 만들어 다시 왕정복고가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물론 찰스 1세는 궁핍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권리청원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영국을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프랑스 등 동시대 유럽에 대한 역사를 조금 이해하면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오페라로 서울, 대구의 전막 공연이 아닌 부산에서는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만났다.

만 33세의 일기로 짧은 생을 마감한 벨리니의 마지막 작품으로 1835년에 작곡되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페라가 작곡된 후 1845년부터 1906년 사이의 공연 기록이 없다. 기록이 없는 이유를 다양하게 이해하고들 있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오페라 <청교도>가 작곡되었을 당시에는 힘 있는 소리의 벨칸토를 부르는 성악가가 있었지만, 이후 이러한 소리를 지닌 성악가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그 이유는 벨리니가 작곡할 당시에는 분명 힘 있는 벨칸토 창법의 가수가 고음의 F음을 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음 F를





노래하는 테너는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다(음악사를 보면 당대에는 연주자들이 연주불가를 선언하였던 곡이 후대에 와서 최고의 명곡으로 인정되고, 아주 활발하게 연주되는 곡이 얼마나 많은가). 그만큼 힘을 내재한 벨칸토 창법은 어려운 것이다.

특히, 테너 역의 아르투로가 부르는 아리아 ‘사랑하는 이여, 그대에게 사랑을(A te, o cara, amor talora)’은 벨칸토 오페라의 최고점으로 고도의 발성법이 요구되는 아리아이다. 이날 아르투로 역의 줄리오 펠리그라는 고운 소리로 무난하게 소화해냈지만, 신이 맺어준 사랑을 이야기하는 절절한 사랑의 노래에 강한 확신이 담겨있어야 하는 내재된 힘의 소리를 시원하게 들려주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도니제티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에 나오는 광란의 아리아에 건주는 엘비라 역의 소프라노 데지레 랑카토레가 부르는 광란의 아리아 ‘이곳에서 나를 부르던 그이의 달콤한 목소리(Quella voce sua soave)’에서 랑카토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18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폐막작으로 11월 6일과 7일 양일간 열린 연주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서울 예술의전당에서의 연주 사이에 열린 공연이어서인지 최고의 공연이라 하기에는 왠지 아쉬움이 남았다. 게다가 이러한 이유인지는 모르나, 자연음향 홀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한다면 성악가들이 바로 들려주는 소리와 스피커를 통하여 들려오는 소리가 섞여서 스피커 특유의 기기음으로 성악가 본연의 소리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이크는 매우 섬세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본연의 소리를 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콘서트 홀에는 최고의 소리를 위해 반사판을 비롯한 다양하게 잔향을 처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처음부터 건축가들이 설계하고 만들 것이다. 건물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그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이 기능을 망치는 것은 결국 자연음향보다 전자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로 인함이 훨씬 크다. 혹여 오해는 마시라, 관객이 보는 무대 위 마이크는 확성의 역할보다 녹음의 역할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성악가들이 행여나 마이크를 통한 확성에 기대어 노래하가는 영원히 무대를 떠나야 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성악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대를 떠나게 하는 장이 될 수도 있는 무대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다.

이날 연주에서는 콘서트 오페라이긴 하지만, 관객이 쉽게 만날 수 없는 내용의 공연으로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조금 더 친절하게, 서곡과 간주곡에 줄거리와 곡이 이어지는 자막이라도 안내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부산오페라하우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 많은 관객 개발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세심하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오페라 제작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시대를 담는 또 하나의 그릇이 생기는 현실에 더욱 냉정하게 생각하는 힘을 모을 때가 바로 지금이다.

20대 신예연주가의 충격적이고 신선한 해석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 김원명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언제부터인지 한국 젊은 연주자들의 국제 콩쿠르 입상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 웬만한 군소 콩쿠르 입상으로는 사회적 관심조차 얻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런데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세계적 권위의 콩쿠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피아니스트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러나 아무나 오르지 못하는 험난한 고봉 중 하나가 부조니 콩쿠르다. 부조니 콩쿠르의 역사와 권위, 또 올해 콩쿠르에서 한국인 연주자들의 기쁜 입상 소식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다. 이 콩쿠르에서 올해 9월 우승한 신예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11월 18일 저녁 부산의 애호가들과 처음 만났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박재홍의 독주 무대는 콩쿠르 우승 직후의 순회 연주 성격인 만큼 경연 당시 연주했던 세 곡으로 꾸몄다. R.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와 바흐-부조니의 '쇼팽 프렐류드에 의한 10개의 변주곡'을 전반부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29번 '함머클라비어'를 후반부에 배치했다. 관객들은 이 무대를 통해 늦게나마 콩쿠르의 뜨거운 열기를 느껴볼 수 있었을 터이다.

첫 곡은 R.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 16'. 총 8개의 소곡으로 구성된 이 작품의 제1곡에서 박재홍은 마치 슈만의 내면 자아 플로레스탄의 광기와 격정에 빙의된 듯 폭발적인 파워와 템포로 시작했다. 작곡가의 의도를



최대한 표현하려는 의도인 듯한 음량과 템포의 극단적 대비는, 이어지는 오제비우스의 시적이고 몽환적인 자아를 표현하는 부분까지 듣고 나면 확연히 느껴진다. 연주의 완성도나 기교의 완벽함 같은 통상적 평가 용어들은 언급할 의미가 없다. 자신의 소설 주인공 크라이슬러를 통해 자아를 드러낸 낭만주의 대문호 E.T.A. 호프만, 그리고 이를 통해 다시 자신의 내면세계를 작품 속에 투영한 슈만, 그리고 자신의 연주를 통해 200년에 가까운 시차를 넘어 현대의 천재들과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 박재홍의 ‘낭만적’ 연주 자세는 충분하고 바람직하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물론 해석의 문제일 수 있지만, 몇몇 악구에서 음향이 필요 이상으로 혼합되어 베이스와 상성부 선율선을 비롯한 개개의 음들이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이 적절한 수준 이상의 댐퍼 페달 사용 때문인지, 아니면 동시에 혹은 연속하여 울리는 여러 음표 사이의 위계적 중요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타건 결과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평자의 귀에는 결과적으로 다소 거슬렸다. 이런 점은 첫 앵콜곡으로 연주한 바흐-부조니의 곡에서 다시 느껴졌다. 특히 전형적인 호모포니 조직에서는 선율선의 선명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직하다. 물론 듣는 이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겠다.

두 번째 곡은 F. 부조니의 ‘쇼팽 프렐류드에 의한 10개의 변주곡’. 피아노 비르투오소였던 부조니가 대 선배 쇼팽의 선율에 붙인 곡이니 그 음악적 견고함과 기교적 깊이가 어떨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평소의 피아노 무대에서 듣기 어려운 난곡이다. 푸가로부터 시작하여 타란텔라, 왈츠, 스케르초에 이르기까지 이 변주곡에 담긴 변화무쌍한 리듬적 흥미와 반음계적이고 화려한 선율적·화성적 흥미를 피아니스트 박재홍은 완벽에 가깝게 표현해냈다.

후반부를 장식한 첫 곡이자 이날 무대의 대미를 장식한 곡은 앞의 두 곡보다 작곡 연대가 약간 앞선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 제29번 내림나장조 작품 106 ‘hammerklavier’. 1악장의 시작은 마치 스포츠카가 출발선에서 엄청난 속도로 굉음을 내며 출발하듯 극적으로 튀어 나갔다. 평자가 머릿속에서 기대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빠르고 강렬했다. 충격적이고 신선한 해석이다. 그러나 그 충격은 이내 이해로 선화한다. 이 곡이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 32곡 중 가장 혁명적인 작품일 뿐 아니라, 스스로 ‘hammerklavier를 위한 대 소나타’라는 이름을 붙인 작품이란 사실 베토벤은 생전에 자신의 작곡 양식에 적합한 강하고 무거운 건반을 가진 클라비어(건반악기)가 제조되기를 바랐다. 이 곡의 서두는 제목답게 망치(hammer)로 치는 듯한 악구가 넘쳐난다. 박재홍의 ‘hammerklavier’는 그래서 베토벤의 이해를 넘어 칭찬을 들을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도 박재홍의 젊음이 이 상황을 이해하게 만든다. 그가 10년 후, 20년 후에 이 곡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날의 연주는 그의 청춘에 걸맞다.

정작 관객을 숨죽이게 만든 건 아다지오 악장이다. 작곡가 스스로 소스테누토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연주자는 세 번째 악장에서 마치 꿈속을 배회하는 듯한 몽환적인 피아니즘을 아낌없이 구사한다. 연주 중에 자신의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뚝뚝 흘려대는 감정과다 양식(empfindsamer Stil)을 경험하고 영향을 받았을 베토벤에게 이런 해석이 그리 새삼스럽진 않을 것이다. 쉽지 않았겠지만, 이미 hammerklavier 소리를 듣지 못하는 40대 거장의 깊은 감성이 20대 신예 연주가의 섬세한 감성으로 재현되는 순간이다.

반면 모방 대위법적 부분에서는 일순간 건조한 바흐 시대의 표정으로 급변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악곡의 각 부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맛을 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예정된 프로그램이 끝난 후 관객들의 요청으로 부조니, 쇼팽, 드뷔시의 부담 없는 소품 세 곡이 객석의 귀를 좀 더 호강시킨 후 박재홍의 부산 무대는 종료됐다.

박재홍이 피아노를 연주할 때면 피아노와 분리된 객체가 아니라 마치 피아노와 한 몸, 피아노의 한 부분으로 느껴진다. 피아노와 온종일 같이 지낸다고 한 몸이 되는 건 아닐 터다. 스승 김대진 교수의 말씀대로 그가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피아노를 둘러싼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중시하는 큰 연주자의 길, 외국 유학의 환상을 깨는 토종 연주자의 길을 걷기 바란다.

위험한 커브가 그려낸 그들만의 사각지대

극단 어니언 킹
‘해안도로’

◆ 김남석 부경대학교 교수

제9회 부산 가을소극장 페스티벌 참가작 중 <해안도로>는 여러모로 눈길을 끄는 작품이었다. 원작의 설정도 흥미로웠고, 번안 각색한 공연 역시 그에 못 지않게 흥미로웠다. 고속도로 옆에 숨어 살면서 교통사고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형제’를, 해안도로 옆에서 거주하며 서로 다른 취향을 드러내는 남매로 바꾼 인물 설정 역시 그러했다.

원작의 형에 해당하는 각색작의 누나는 ‘예술’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시 쓰기를 즐기는 인물이다. 확장된 의미에서 시인으로 보아도 무방한 인물이다. 시인이라는 설정에는 그녀가 글을 읽거나 쓸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이들과 차별화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실제로 원작에서 형은 지식인에 더욱 근접한 인물이었지만, 각색 과정에서 지식인 설정은 다소 약화되고, 대신 자기도취 성향을 물려받은 시인(혹은 예술가) 지망생으로 변모한다.

동생 역시 문제적 인물이다. 동생은 위험한 도로(급 커브길) 옆에서 사고를 예측하고 그 사고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수입에 집착하는 인물이었다. 각색작에서는 동생의 이름을 ‘일만’으로 바꾸었는데, 이러한 작명(作名) 방식은 ‘일에만’ 집착하며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그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설명한다. 일만은 위험한 커브길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은근히 즐기고 있다. 비록 사고 방지를 위해 꾀를 세우거나 사고 위험에 처한 차량에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하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죽은 이를 처리하고 망가진 차로 이익을 뽑아내는 일에 기계적으로 매달린다. ‘일만’하다 죽을 수도 있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사고의 이득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원작의 설정도 그러했지만, 각색작에서도 두 남매(형제)의 삶은 대조적으로 그려진다. 한쪽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편지를 쓰고, 다른 한쪽은 교통사고의 이익을 챙긴다. 한쪽은 시 쓰기라는 현실 직업과 동떨어진 일에 매달리고, 다른 한쪽은 두 사람 몫을 벌기 위하여 악착같이 육체노동에 집착한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누나의 시 쓰기는 현실 적응력을 상실하는 반면, 동생의 육체노동은 필수적인 요소로 격상된다. 동생은 위험한 해안도로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죽음을 수용하는 데에 훨씬 너그럽다. 그는 자신의 일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가 응원하고 있다는 누나에 비해서도 훨씬 정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자부한다.

연출자는 이러한 두 인물과 두 인물이 바라보는 교통사고가 우의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한 판단은 원작이 각색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바다를 끼고 탁월한 경관을 가진 해안도로로 극적 공간이 변화하면서, 두 남매가 겪고 있는 사고의 현실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설정도 현실적 정황으로서의 개연성을 점차 상실하고, 개방된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불법 매장하고 해당 사고를 은닉한다는 설정이 반복되면서 신빙성도 잃어갔다. 대신 이러한 사고와 그 사고를 대하는 이들이 드러내는 상징성이 강화되었다. 그들 남매가 묘사하고 무대에서 대사로 연출되는 사고는 진짜 교통사고라기보다는, 일종의 비유나 상징으로 더 큰 유효성을 지닌다.

그러한 기미는 누나가 쓴 진정서에서 더욱 극대화된다. 누나는 일상 언어가 아닌 시구를 진정서에 적어 보낸다. 도로를 관리하는 이가 외우고 싶을 정도로 그럴듯한 시의 구절이 탄생하기도 할 정도이다. 하지만 시가 대체하고 있는 언어는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야 하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현실 언어였다. 시로서는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고 무엇보다 적격의 자리도 아니었다. 하지만 누나는 신경 쓰지 않았고, 동생 역시 신경 쓰지 않았으며, 이를 읽는 관리자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에게 사고는 애초부터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사고는 자신의 바깥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했고, 자신은 그러한 현상에 반응하는 독립된 주체여야 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애초부터 그들 바깥의

문제이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남긴 유산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러한 사고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더 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 사고는 안타깝고, 흥분되고, 실제로 마주해야 할 일이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그 사고가 아닌 자신이 더욱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니 진정서를 시로 써서 관련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사실 그녀를 비롯한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셈이다.

그것은 개인적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도 있다. 작품 속에는 누나가 관련 사고를 육하원칙에 따라 진정서 혹은 탄원서를 재기술하려는 장면이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녀가 쓰려는 내용은 육하원칙으로 완벽하게 설명되기 어려운 내용이었으며, 그렇게 쓰는 일에 그녀가 그다지 만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주체가 ‘누가’인지, ‘언제’ 일어났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를 분명하게 기술하기 어려웠고, 그나마 교통사고라는 ‘무엇을’ 정도나 간신히 확정지을 수 있을 따름이었다. 이러한 그녀의 고민과 결국 탄원서가 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와 현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녀가 보기에 세상은 늘 불분명한 상태이다. 현실의 언어 역시 불분명한 세상의 모습을 해명하기에는 그만큼 불완전했다. 그러니 아예 더 불완전한 현실 언어, 즉 시의 언어가 차라리 유용할지도 모른다.

동생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동생은 장애를 앓고 있어 신체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고, 대외 접촉이 적어 상대에 대한 표정이 경직되어 있으며, 누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신뢰하지 않은 인물이다. 한눈에도 사회의 외곽에 성장하였고 삶의 소외 지대에서나 물려받을 수 있는 인물의 표식을 잔뜩 지니고 있었다. 그의 삶은 늘 팍팍했고, 그의 어투는 딱딱했다. 교통사고의 위험을 구경하는 태도에서도, 그 사고 이후에 뒷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나 사건 긴장을 즐기는 인상이었다. 그것은 외곽으로 밀려나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그러한 방식으로나마 위안하겠다는 내적 욕망에 해당한다.

특히 한 명의 생존자가 생겨나고 그 생존자가 그가 지금까지 유지했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험이 가중되자,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꿈틀거리는 폭력적, 가학적, 심지어는 살해를 향한 그의 욕구 역시 덩달아 강력해진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 그를 죽이거나 혹은 그로부터 더 큰 이익을 얻어내는 일에 몰두했다. 그러자 누나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광기도 함께 폭발했다. 누나 역시 세상에 동정과 호의만을 지닌 인물은 아니었던 셈이다.

두 인물의 드러난 속성과 광기는 결국 추상화된 사회적 계층과 연결된다. 각색작은 더욱 강하게 그러한 연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소위 말하는 지식인이자 예술가는 현실 착오적인 도찰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시와 현실의 언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력자에 불과하지만 결정적인 이득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잔혹해질 수 있었다. 반면 생산직에 종사하며 육체노동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던 계층은 내면의 열등감과 광기를 결국 통제하지 못하고 세상을 위험천만한 상태로 몰아넣을 또 다른 위험을 간직한 인물이었다. 제 삼의 인물로 등장하는 도로관리국 직원 헌신은 그러한 상황을 비집고 들어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는 기회주의자에 불과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자기만족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는 지식인과 광기를 물려받고 이를 폭탄처럼 다루고 있는 하층 노동자 그리고 어지러운 사회에서 이익만을 쫓는 무리들은 결국 위장한 기회주의자가 분할 점령한 세상을 보여 준다. 그 세상은 멀리 있는 세상은 아니다. 그 세상은 분명 우리의 현실이지만, 현실의 표피에 가려져 있다는 측면에서는 추상이기도 하고 우의이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하다. 연출가는 이들의 자리를 각자 분할하여 제시하였다. 베케트의 부조리극처럼, 그들은 상자로 보이는 세계 속에 갇혀 있었고, 그 상자를 나옴이라든가 각자의 영역으로 분리된 세상의 귀퉁이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곳은 어떨 때는 깊은 산속 고속도로로 옆이었고, 현재에는 해안가 후미진 모퉁이일 따름이다. 세상을 가리는 위험한 커브길이 만든 또 하나의 사각지대였지만, 그로 인해 그들이 숨어 세상을 조롱할 수 있는(혹은 숨길 수 있는) 각자의 분할 통치 영역이기도 했다. 위험한 커브가 조성한 그들만의 세계였던 셈이다.

Review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제66회 정기연주회
판타스틱(Fantastic)

일 시 | 12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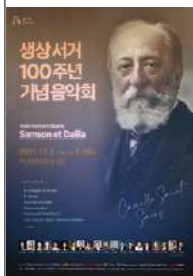


전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도 올 한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기 노력했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2021년 마지막 무대 '판타스틱(Fantastic)' 수석지휘자 이명근이 지휘하고 삼육대학교 글로벌 영재교육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서현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핀란드의 국민작곡가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표제음악의 완성자라 일컬어지는 베를리오즈의 대표작 '환상교향곡'을 들려준다.

협연자 이서현은 따뜻하고 풍부한 음색과 섬세한 테크닉을 겸비한 바이올리니스트로 현재 서울 비르투오지 챔버오케스트라, 피아노트리오 여운 단원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벨리씨미 성악연구회
생상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 12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벨리씨미 성악연구회 010-9281-2662



지난 2005년 창단 후 따뜻한 테마와 주제가 있는 무대로 지역문화발전에 힘쓴 벨리씨미 성악연구회가 생상의 서거 10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성탄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생상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작품 12'와 그의 대표적인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갈라콘서트를 선보인다.

- 소프라노/이은미, 이윤순, 장은영, 정혜리, 백성희, 김기원, 이지영
- 메조소프라노/이지영, 성미진
- 테너/서훈하, 박동운
- 바리톤/이석영, 임성욱, 이탁고, 강태영
- 피아노/최성근, 금찬이
- 바이올린/이영주
- 첼로/정서은
- 플루트/유혜성
- 우정출연/이데아성악포럼
- 해설/김태형

영웅환타지아 3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음악회

일 시 | 12월 2일 목요일 오후 6: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유엔 PEC 사회적협동조합
627-8402, 010-2471-8362



유엔 정신과 평화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유엔 PEC사회적협동조합이 마련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의령 소리샘 벨파이어, 후고 앙상블, 스펀 우드 공연단, 스텔라 무용단, 우리소리에 솔단, 토포주거이자 색소폰니스트인 진호근, 야니와 샤프렌, 그리고 UN평화기념관 합창단이 출연, 우리 귀에 익숙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린다.

한편, 이번 공연의 입장료는 환경 살리기, 나무심기운동과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참전용사 가족들을 위해 쓰여진다.

- 진행/윤춘영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 건립 기원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일 시 | 12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세계적인 성악가들과 함께 오페라의 작품세계로 떠나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원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김광현이 지휘하고 UKO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적인 테너 김재형과 바리톤 김주택을 비롯해 소프라노 이명주, 박현진, 메조소프라노 최승현, 테너 김준연, 바리톤 김종표 등 실력있는 성악가들이 출연,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특히 1부에서는 비제 '카르멘', 베르디 '라트라비아타', 푸치니 '토스카' 등 세계 3대 유명 오페라를, 2부에서는 '벨칸토 오페라', 프랑스 낭만 오페라, 베르디에서 베리조모까지' 등 3개의 테마로 나누어 그 주제에 맞

는 다양한 오페라 아리아를 감상할 수 있다.

테너 김재형은 그동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런던 로열 오페라하우스, 빈 슈타츠오퍼, 바르셀로나 리세우 극장 등 세계 주요 극장에서 주역으로 활약하며 세계적인 테너로 활동중이며, 테너 김준연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알제리, 세르비아, 스위스 등 다수 오페라단 초청연주와 오페라 주역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동양의 카루칠리'라 불리는 바리톤 김주택은 세계적인 오페라 스타이자 JTBC 팬텀싱어 시즌2를 통해 결성된 '미라클라스'의 리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바리톤 김종표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목소리'라는 호평을 받으며 오페라 전문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소프라노 이명주는 오스트리아 린츠 극장의 주역 가수를 역임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있으며, 소프라노 박현진은 수많은 오페라 무대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부산을 대표하는 소프라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메조소프라노 최승현은 제1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현재 오페라 주역가수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휘/김광현
- 연주/UKO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일 시 | 12월 3일 금요일 오후 9: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음악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동시대 음악인 현대음악을 소개하는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지난 2019년 '미니멀리즘 음악'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심야음악회에서는 음악의 태동 이래 가장 이질적 장르 중 하나인 '그래픽 노테이션'을 소개한다.

프로그램
엘 브라운/디셈버 1952
보드 코르디에/벨, 본, 세이지
베르그스툼 닐스/투워드 언 언베어러블 라이트
니스(Towards An Unbearable Lightness)
• 지휘/이민형(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부산문화회관 2021 BSCC 시네 오페라 초이스 베르디 완전정복

베를린국립오페라 맥베스

일 시 | 12월 4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12세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2021년 베르디 대표작 4편을 소개하는 ‘베르디 완전정복’ 마지막 상영회로, 2018년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의 신작 ‘맥베스’를 상영하는 (재)부산문화회관 2021 BSCC 시네 오페라 초이스.

베르디의 초기 오페라 중 하나인 ‘맥베스’는 거대한 서사 탓에 자주 공연되는 작품은 아니지만 당시 30대였던 베르디의 나이가 믿기 어려울 만큼 깊이 있고 원숙한 작품성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미니멀한 세트 위에 다양한 영상으로 비주얼적 활력을 더한 무대에서 살아있는 전설 플라시도 도밍고, 파워풀한 기량의 안나 네트렙코, 섬세한 표현력의 연광철이 시너지를 폭발시킨다.

메조소프라노 배주향 귀국독창회

일 시 | 12월 4일 토요일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배주향 귀국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도이, 로마 ‘산타체칠리아(S. Cecilia)’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2018년 이탈리아 낙소스 윈터 캠프 제6회 국제음악상 ‘알레산드로 룽고’ 성악부분 1위를 수상한 배주향은 귀국 후 2018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문화융합 페스티벌 ‘젊은 성악가 5인의 가곡과 아리아의 향연’에 서는 등 다양한 연주활동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하며 열정적인 음악적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 오펜베르크, 마스네, 브람스, 비제, 도니제티, 김순애, 조두남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이소영

2021 적재 전국투어 서로의 서로

일 시 | 12월 5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1만원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싱어송라이터 적재의 따뜻한 음악과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적재 부산콘서트

지난 2014년 가요계에 데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투어 콘서트로, ‘서로의 서로’라는 타이틀처럼 다르게 지나온 우리

지만 함께 걸어가며 온전하게 하나가 될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아이유, 태연, 김동률, 박효신, 정재형, 거미, 케이윌 등 많은 뮤지션들과 음악작업을 함께 하며 공연의 라이브 세션으로 이름을 알린 적재는 2014년 정규 1집 ‘한마디’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정식 데뷔한 후 배우 박보검이 리메이크해 화제가 된 ‘별 보러 가자’를 비롯 ‘나랑 같이 걸을래’,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잘 지내’ 등 그만의 섬세한 감성이 깃든 진솔한 노래들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멜로스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5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6세 이상 관람)

문 의 | 멜로스오케스트라 010-6432-0821

지난 2002년 다양한 직업군의 음악 동호인들로 출발한 후 꾸준한 활동을 통해 음악적 기량을 쌓아온 부산멜로스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연주회.

멜로스오케스트라는 창단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초청연주, 금정수요음악회, 울산 아가페 합창단 정기연주회, 환우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야외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이탈리아풍의 서곡 D.591

모차르트/바이올린협주곡 제4번 사장조 K.216

도니제티/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중 ‘주위는 침묵에 잠겨’

슈베르트/교향곡 제6번 다장조 D.589 등

• 바이올린/박은서 • 소프라노/황신영

황여진 비올라 독주회

일 시 | 12월 5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청소년 50% 할인)

문 의 | 황여진 0502-1919-5676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이자 IPB, 음악실험실 짜임 멤버로도 활동하며 따뜻한 감성과 진정성있는 연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비올리스트 황여진 독주회.

서울예고 2학년 재학 중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하여 졸업한 후 스위스 제네바 국립음대에서 석사(Master),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황여진은 유학시절 다양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유명 지휘자 및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추는 한편 스페인, 동유럽,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를 가져왔다.

황여진은 귀국 후 코리아나솔로이스츠, 정명훈의 원코리아 오케스트라 등 다수 오케스트라 무대를 비롯해 실내악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 피아노/강형은 • 작곡/황선영

테너 김성 귀국독창회

일 시 | 12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하고 부산아지무스오페라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다 도독, 함부르크 Johannes Brahms 시립음악원에서 전문연주자과정(석사과정)을 만장일치 만점으로 졸업한 테너 김성 귀국독창회.

유학 중 오페라 ‘사랑의 묘약’, ‘코지 판 투테’, ‘라 보엠’ 등 주역으로 무대에 서며 전문연주자로서의 기반을 다진 김성은 2018년 베토벤 ‘합창’(함부르크 Neue Philharmonie), 함부르크 Hauptkirche 주회 브람스 추모음악회, 2019년 모차르트 ‘레퀴엠’, 바흐 ‘마태수난곡’,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솔리스트로 무대에 섰으며, 2019년 Hanse Philharmonie ‘오페라 갈라콘서트’, 2020년 함부르크 Tschaiowsky Saal 주회의 슈만, 스트라우스 가곡발표회, 독일 한인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 피아노/이수진

제4회 오퍼스피스트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9일 목요일 오후 7:00 **챔버홀**
문 의 | 오퍼스피스트 010-8338-7375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권혜령과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오퍼스피스트의 14번째 정기연주회.

권혜령은 이화여대 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 음악대학에서 수학한 후 조선일보 신인음악가로 데뷔,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권혜령 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이 출연, 피아노 솔로 및 듀오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출연/권혜령, 최지현, 최서희, 최서연, 정은혜, 강한솔, 노은주, 안태준

부산시립무용단 제84회 정기공연
소생 Regen

일 시 |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8:00
11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을 마무리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아 침체된 일상의 복원을 빌며 축원과 발원의 의미가 담긴 무대를 선사하는 부산시립무용단 제84회 정기공연 '소생 Regen'.

지난해 이정윤 예술감독의 취임공연으로 무대에 올라 호평을 받았던 '소생 Regen'은 삶의 치유와 위로에 대한 춤 에세이로, '12생사(12死)'들과 생의 문턱을 넘나드는 인간들과의 이야기를 그린 가무악극이다. 특히 '소생'은 주도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작품으로, 지난해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했던 시기에 무대에 올려져 치유와 위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 안무/이정윤(예술감독) • 음악/장재일, 이아람

나예지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2월 12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나예지 010-5646-2153



풍부한 표현력과 화려한 테크닉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나예지 독주회.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도미, 존스홉킨스대학 피바디 음대에서 석사, 미네소타대학교에서 박사를 취득한 나예지는 일찍이 국내외 콩

쿠르에서 상위 입상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2010년 워싱턴 D.C 케네디센터, America University Abramson Recital Hall에서의 두 차례 데뷔 리사이틀을 시작으로 다수 무대에 서었다.

솔로 뿐 아니라 실내악에도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마스터클래스와 다수의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 연주하며 전문 연주자로서 자질을 갖추어온 나예지는 2018년 예술의전당에서 귀국 독주회를 가진 후 본격적으로 국내 활동을 시작한 후 2020년에는 부산음악인으로 선정되어 마루국제음악제에서는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 중이다.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실험실 프로젝트 음악극 나혜석

일 시 | 12월 14일-15일 화-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15세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시대를 앞서 간 최초의 여성 화가 나혜석의 삶과 사상을 되돌아보는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이번 작품은 나혜석의 삶을 통해 그녀의 존재로 대변되는 당시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여성인권 확대가 사회적인 저항이나 혹은 기득권과 부딪혀 갈등을 빚었을 때 발생하는 비극적 상황에 대한 고찰이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부조리를 직시하고 성찰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작곡가 백현주의 곡과 극작가 김지용의 텍스트가 융합되는 무대로,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의 실험정신이 돋보인다.

- 작, 연출/김지용 • 작곡/백현주
- 출연/김은옥, 염지선, 이현주, 황창기, 김신호, 안예은, 강대현, 이수연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일 시 |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2회 정기연주회를 미리 만날 수 있는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오픈 리허설 형식의 '미완성 음악회'는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음악회로, 연주를 앞두고 단원과 지휘자가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모습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날 무대에서는 최수열 예술감독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제82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인 김택수 작곡 '플래시!!'의 리허설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특히 작곡가인 김택수가 직접 음악회에 참가해 초연을 앞두고 그의 작품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함께 지켜보며 작곡가로서의 작품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프라노 강수진 귀국독창회

일 시 |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강수진 010-4030-5122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영역을 탐구하며 늘 다양한 배역을 연구하고 노래하는 소프라노 강수진 귀국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부를 거쳐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Canto Tradizionale 과정, 밀라노 시립음악원 보컬코치과정을

졸업한 후 도미, 뉴저지 주립대에서 Artist Diploma 학위를 취득한 강수진은 Capriolo 국제성악콩쿠르 영아티스트상, Citta di Brescia 콩쿠르 특별상, 국제콩쿠르 Pietro Argento 1등 없는 2등, 미국 NATS East Region 1등을 수상하는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여 언론과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풍부한 감정표현과 탁월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다수 오페라 무대에 서온 강수진은 현재 MIA 매니지먼트 소속 가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클라리넷/유지훈 • 바이올린/정진희
- 피아노/진영선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현악사중주 전곡연주회 시리즈 VII Happy Birthday Beethoven 베토벤의 생일에 듣는 현악사중주

일 시 | 12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65세 이상 및 학생 50%)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지난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회(16곡+그랜드 푸가)에 도전한 에델현악사중주단의 마지막 무대. 독일어로 '우아한', '품위 있게'라는 뜻을 지닌 에델 현악사중주단은 클래식 본고장인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세계 여러 곳에서 공부하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정진경, 손혜림, 비올리스트 강수이 그리고 첼리스트 김혜지로 결성되었으며, 클래식 음악이 가진 고귀한 아름다움을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다양한 무대에서 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현악사중주 제15번 작품 132와 제16번 작품 135를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2회 정기연주회 시작 아니면 끝

일 시 | 12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보내며 올해 마지막 무대로 선보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2회 정기연주회 '시작 아니면 끝'.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올해 처음 도입했던 '올해의 예술가 (Artist-in-Residence)'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된 작곡가 김택수의 창작곡 '플래시!!'를 개작 초연으로 들려주며,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 명성이 높은 서울대학교 최희연 교수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시벨리우스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제7번'을 감상할 수 있다.

- 지휘/최수열(예술감독)
- 피아노/최희연
- 작곡/김택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제60회 정기연주회 Santa, Jazz & Unplugged

일 시 | 12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흥겨운 재즈와 신나는 캐롤이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한 송년무대 'Santa, Jazz & Unplugged'. 수석지휘자 김수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밥 칠콧(Bob Chikcott)의 로맨틱한 재즈 미사곡 '니다로스 재즈 미사(Nidaros Jazz Mass)'와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인 메조소프라노 배주향의 특별무대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정의 독주,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특별한 무대 'Santa, Jazz & Unplugged'로 성탄의 흥겨움을 전한다.

- 지휘/김수현(수석지휘자)
- 연출/최준혁
- 연주/김희은(엘렉트), 김연정(바이올린), 유영욱(피아노), 김영훈(드럼), 전영주(베이스)
- 특별출연/메조소프라노 배주향(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종완 작품발표회 썸, 멈춤의음악

일 시 | 12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종완 010-7171-2834



탱고, 영화음악, 국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곡가 김종완의 작품발표회. 김종완은 지난 2019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을 소재로, 클래식 본연의 고풍스러움에 인상주의적 색채감을 더해 그만의 섬세한 감성으로 그려낸 피아노앨범 '물'을 출시한 바 있다. 썸, 멈춤의 음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모두가 뜻하지 않은 일로 썸을 겪고, 그 이후 변화된 일상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썸, 숲속, 숨, Beyond the Time, 단역' 등 감각적인 음악과 다양한 편성의 조합으로 구성된 작품들을 초연으로 선보인다.

- 작곡, 피아노, 반도네온/김종완
- 바이올린/고은비, 강소연
- 비올라/정하람
- 첼로/신윤경
- 피아노/이안나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SUMI JO & I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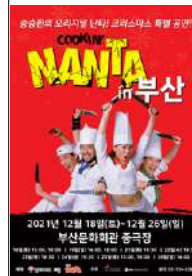
일 시 |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국제대무 무대 35주년을 기념하고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이무지치의 창단 70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SUMI JO & I MUSIC'.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출신의 음악가들이 창단한 이무지치는 바로크, 낭만파 음악 뿐 아니라 현대음악까지 탁월한 연주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출신의 조수미는 데뷔 35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기량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이무지치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게 해준 프로그램인 비발디의 '사계'를 비롯해 바흐, 헨델, 퍼셀 등 바로크 시대 가장 아름다운 아리아를 통해 바로크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1 송승환의 <난타> 크리스마스 부산 특별공연

일 시 | 12월 18일(토)-26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26일 공연은 오후 2:00, 월요일 공연없음) **중극장**
입장료 | VIP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5% 할인)
문 의 | (주)엠씨네트웍스 02-739-8288



한국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린 한국 최초의 비안라극 '난타'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지난 1997년 10월 초연무대를 가진 후 현재까지 전 세계 58개국 318개 도시, 관객 1,414만명을 동원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난타'는 특히 주방이라는 보편적인 공간을 무대로 설정, 멋진 악기로 승화된 주방기구의 화려한 연주와 한국 전통춤과 가락이 어우러지는 환상의 퍼포먼스에 탄탄한 스토리와 드라마틱 요소를 대입시켜 누구나 신명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이윤경 오보에 독주회

일 시 |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프로젝트무지개 02-6160-6380



풍부한 감성과 섬세한 연주력을 겸비한 오보에리스트 이윤경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도미, 신시내티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석,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인디애나 대학교 음악대학에서는 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재원

인 이윤경은 과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대학교 관악동문 윈드앙상블,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솔리스트로서 주목을 받았으며, 금호영재콘서트와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독주회를 성공리에 마친 바 있다.

홍콩, 중국, 대만, 일본 등 투어 연주를 통해 해외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으며 연주자로서 입지를 다져온 이윤경은 2016년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솔리스트로서뿐만 아니라 다수 오케스트라의 객원 수석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피아노/심관섭 • 바순/김연화

부산거문고악회 제1회 정기연주회
彈琴·탄금

일 시 | 12월 19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거문고악회 010-8987-4884



琴道の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문고음악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새로운 거문고 음악의 전통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써온 부산거문고악회 정기연주회.

부산에서 활동하는 유일무이한 거문고연주단체로, 2009년 창단 후 그동안 10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 해외공연, 야외 버스킹 공연, 미니콘서트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 연주/김명희, 김수민, 송다솔, 김현경, 신근영, 이민민, 이승진, 김소량, 윤희민, 김채린, 이승진, 서지훈, 전하윤, 이승은
- 작곡/양승환 • 소리/김지혜
- 바이올린/동경화, 송범석
- 비올라/이현지 • 첼로/천나혜
- 콘트라베이스/박성진 • 건반/차민영
- 가야금/박다현, 류은나 • 타악/고희창

소프라노 신언화 귀국독창회

일 시 |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문 의 | 신언화 010-5698-1796



경주 Johannes Brahms konservatorium 전속 음악코치, 경주 클래식 성악 앙상블 전속 음악 코치, 경주 오페라단 단원, (사)이음 클래식 단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신언화 귀국 독창회.

독일 함부르크 Johannes-

Brahms-Konservatorium 학사 및 전문연주자과정과 이태리 밀라노 G.Donizetti Accademia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 자선단체 Hoffnungsorte Hamburg 전속 연주자, 독일 함부르크 Young Vocal Ensemble 단원을 역임한 신언화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등 다수 오페라에서 주·조역으로 출연했으며, Hamburg Brahms Konzert Saal Recital, Presso Sala da Concerto Comune Masate Recital, 함부르크 한인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 반주/전병하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일 시 | 12월 23일-24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4인 가족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보내며 부산시립예술단이 선사하는 특별한 송년무대 '크리스마스 캐롤'.

찰스 디킨즈 원작 '크리스마스 캐롤'은 부산시립예술단 4개 단체가 참여하는 초대형 융복합 콘텐츠 공연으로, 극을 이끌어가는 부산시립극단을 비롯해 시립합창단,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가, 연말 가족 관객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한 이야기 중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현대적으로 각색, 부산시립예술단의 특색을 담은 대형 연합공연으로 보인다.

• 재구성/작사, 연출/김지용 • 작곡, 편곡/백현주
 • 지휘/이기선 • 안무/이정윤

부산솔리스트앙상블
제2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25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 의 | 부산솔리스트앙상블 010-7315-7352



부산, 경남지역의 성악계를 대표하는 정상급 남성 성악가 70여명이 들려주는 부산솔리스트앙상블 2021년 무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12월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한 무대에 서온 부산솔리스트앙상블은 그동안 가곡, 오페라 합창곡에서부터 성가, 민요에 이르기까지 남성 특유의 웅장한 하모니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왔다. 아리랑 코러스 총감독 겸 지휘자, 더 보이스 챔버콰이어 감독 겸 지휘자로 있는 이병직 지휘자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에서부터 오페라 합창곡, 종교합창곡, 창작 합창곡은 물론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가요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 지휘/이병직 • 피아노/서혜리, 김주리
 • 모듬북/고석진 • 팀파니/정종혁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일 시 | 12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문 의 | 위클래스 070-4190-1289



영화음악의 가장 히사이시 조의 베스트 컬렉션을 만날 수 있는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이번 무대는 히사이시 조의 영화&애니메이션 음악을 60인조 풀편성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영화음악 콘서트로, 이미 서울 롯데콘서트홀,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을 포함해 경기, 대구 등 각 지역에서 수많은 매진기록을 세우며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히사이시 조의 첫 애니메이션 음악인 바람계곡의 나우사키를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음악 외에도 극 영화 음악까지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 지휘/김재원 • 연주/ME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출연/김재원(피아노), 브랜든 최(클래식 색소폰), 고소현(바이올린), 고관수(오보에), 배성우(첼로)

주수진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2월 26일 일요일 오후 7:00 **챔버홀**
문 의 | 주수진 010-5194-5054



뛰어난 테크닉과 섬세한 감성의 연주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주수진 독주회

서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도미, 인디애나음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석사 및 연주자과정, 박사학위를 취득한 주수진은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중국 세르비아 등 세계 굴지의 콘서트홀에서 독주회를 개최, 솔리스트로서 탄탄한 입지를 쌓아가고 있으며 2018년 프랑스 파리의 European American Musical Alliance 페스티벌의 상주 연주자로 발탁되는 한편 같은 해 10월 중국 상하이 코르토 아트센터 및 우시의 Steinway and sons 홀 초청으로 독주회 및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한 바 있다. 2019년 귀국 후 클래식 팟캐스트 MC로 활동하며 대중과 소통해온 주수진은 실내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루시을 앙상블을 창단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통해 관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회 정기연주회 辛丑年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위촉 창작초연곡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辛丑年 송년음악회' 수석지휘자 김중욱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신민원, 소프라노 구민영, 바리톤 박대용,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민영치, 이정면, 오세일, 김성경, 박영란 등 작곡가 5인의 창작곡을 소개한다.

프로그램

민영치/사물놀이 협주곡 'Legacy(선인의 유산)'
이정면/Memorial Song
오세일/소프라노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춘효(春曉)'
김성경/바리톤과 국악관현악/사상팔경가(沙上八景歌)
김성경/소프라노가 부르는 신가악 '새벽' & '해 넘어가
기 전 한참은'
박영란/국악관현악을 위한 '시간속으로...'

2021 송년음악회 브로드웨이 팝 콘서트

일 시 | 12월 28일 화요일 오후 2:00,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인터파크 예매시 50% 할인)
문 의 | (사)이지무스오페라단 010-8520-4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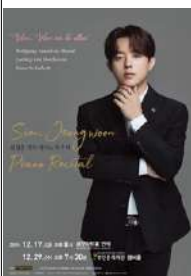
지난 2002년 창단 이후 20차례 오페라 정기공연과 600여회의 음악회를 개최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온 부산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법인 (사)이지무스오페라단의 2021 송년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팝페라그룹 붐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넘버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랜다.

• 출연/김지현 백예훈 김경한 박지은 손유경 최유진



심정운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2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지클레프 02-515-5123



독일의 일간지로부터 '낭만적 음향을 마추한 오트이 만각할 만한 빛나는 기예'라는 평을 받은 피아니스트 심정운 귀국 독주회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대 MUK(전 Konservatorium der Stadt Wien) 학사 및 석사과정을 만장일치 최고점으로 졸업하고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심정운은 오스트리아 High Virtuosity 오디션에 발탁되어 빈 무직페라리온에서 데뷔한 후 세계 유수의 공연장과 페스티벌에서 독주회 및 앙상블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심정운은 Davorin Jenko 국제콩쿠르, Temsig 콩쿠르 듀오부문 우승, Prof. Josef Dichler 국제콩쿠르, Euterpe 국제콩쿠르 피아노 부문 준우승 등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귀국 후 서울, 부산에서의 독주회를 시작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가곡으로 그리는 범일동 풍경 대향, 이중섭

일 시 | 12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부산오페라연합회 0507-4131-3000



지난 2014년 부산지역의 오페라 제작과 지역 공연 활성화를 위해 창립한 후 그동안 다양한 공연예술문화 사업과 전문 연주인의 연주활동 지원, 그리고 문화 소외계층의 예술향유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힘써온 부산오페라연합회의 창작 가곡극 '대향, 이중섭'.

한국전쟁 당시 피란처인 범일동에서 불멸의 예술혼을 불태웠던 이중섭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창작가곡극으로 선보인다.

- 예술총감독/윤장미
- 연출/김민하
- 작/차승호
- 지휘/장병혁
- 음악코치/박성미
- 출연/김지현, 오세민, 이승우, 황자미 외
- 연주/BOF오케스트라
- 합창/유엔평화소년소녀합창단

최경철 제5회 가야금 독주회 즉흥과 틀

일 시 | 12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문 의 | 최경철 010-8771-9814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가야금산조 이수자, 강태홍류가야금산조 보존회 회원, 효산가야금 연주단 단원, 부산가야금 거문고 앙상블 동인, 창작 국악단 젊은풍류 동인으로 활동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는 가야금연주가이자 작곡가인 최경철의 다섯 번째 가야금 독주회.

특히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예술작업들을 통해 미래세대 가야금예술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해온 최경철은 이번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떠오른 선율들을 악보의 틀에 형식화하여 기록한 가야금 즉흥곡과 이미 구상해 놓은 틀 위에 아무런 계산 없이 공연 당일의 영감과 기분으로 가야금을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실제 즉흥연주를 선보인다.

부산시민회관

땃다! 광대 연희 챌린지

일 시 | 11월 30일-12월 2일 화-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부산예술단 010-3585-0115



수준 높은 가(歌), 무(舞), 악(樂)과 전통예술작품을 제작, 연주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예술 공연단체인 부산예술단의 무대.

사물놀이에서 흔히 사용하는 레퍼토리 형식에서 벗어난 극 형태의 작품으로,

광대들의 기량을 겨루는 팀놀이(땅줄, 버나 놀이, 죽방울놀이, 살판)와 개인놀이(설장구, 북춤, 채상고 등)를 스토리텔링화하여 춤, 재주, 연희, 전통음악을 통한 연희주자들의 다이내믹한 재주와 연주를 선보인다.

특히 경쟁과 화합이 공존하는 전통연희의 본질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극 형식의 종합 연희극으로, 이번 무대의 수익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액 기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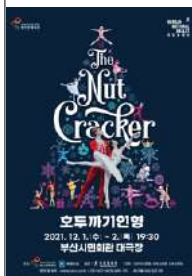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일 시 | 12월 1일-2일 수-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48개월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전석 매진행렬을 이어온 연말 시즌 스테디셀러, 국립발레단 전막발레 '호두까기인형'.

이번 무대에 오르는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은 천재 안무가로 불리는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1966년 마리오스 프티파

의 원작을 재안무하여 러시아 볼쇼이발레단이 초연한 작품으로, 2000년 국내 초연 이후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한 스테디셀러 공연이다.

특히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어우러지는 높은 점프와 고난도 회전, 역동적인 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2021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해피엔딩 오페라음악제
오페라콘서트 사랑의 묘약

일 시 | 12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의 | 아지무스오페라단 010-8520-4649



올해 대한민국 공연예술제에 선정된 아지무스오페라단의 '해피엔딩 오페라음악제' 마지막 무대.

아지무스오페라단은 지난 2002년 창단 이래 38차례 오페라 정기공연과 450여회의 음악회를 통해 오페라의 저변확대와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힘써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에서 가장 자주 상연되는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주요 아리아와 함께 소개한다.

- 지휘/윤상운
- 출연/박현진, 김준연, 강경원, 함석헌
- 연주/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2021 부산문화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 부산문화 1600-1803



클래식과 크로스오버가 함께하는 무대로,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석사, 트로싱겐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가톨릭 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교회음악 석사과정(오르간)을 졸업하고 솔로 및 협연자로 다수 무대에서

온 피아니스트 원영아,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성악 및 함부르크 시립음대 성악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다수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동해온 테너 김준연, 영남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도이, L. Refice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하며 이탈리아 SUBIACO시 솔리스트로 활동하다 귀국 후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는 소프라노 김아름,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 앞에서 연주해 찬사를 받은 바 있는 색소포니스트 최광철과 가수 요요미, 이창휘가 출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낸 시민들에게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시립합창단 제184회 정기연주회
정격연주기법에 의한 헨델의
'메시아' 대연주회

일 시 | 12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5천원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이 2021년을 보내며 마련하는 송년무대.

전 세계적으로 연말이면 가장 많이 연주되는 헨델의 메시아는 종교음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음악적 유산의 하나로 꼽히는 명

작이다.

특히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바로크전문 연주단체인 카메레타 안티와 서울의 연주로 현대악기로는 들을 수 없는 그 시대 원전에 충실한 '메시아'를 들려주며, 소프라노 석현수, 알토 양송미, 테너 조성환, 베이스 박흥우 등 국내 최정상 솔리스트들이 부산시립합창단과 호흡을 맞춘다.

- 지휘/이기선(예술감독)

2021 디딤 문화공간 가무악 공연
아름다운 동행

일 시 |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디딤 문화공간 010-6345-0924

지난 2015년 정은면 대표를 주축으로 전통문화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창단된 디딤예술단의 가무악 무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신명나는 국악과 전통무용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를 채워주고자 마련된 무대로 삼고무, 진도북춤, 한량무, 전통 타악, 풍물놀이, 퓨전난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쇼뮤지컬 캐리와 친구들 2022

일 시 | 12월 18일-19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6만6천원, R석 5만5천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 1577-4868



콘서트와 뮤지컬이 혼합된 신개념 공연 장르인 쇼뮤지컬 '캐리와 친구들 2022' 부산공연.

유튜브의 키즈 예능채널 '캐리와 친구들'을 무대화한 이번 작품은 어린이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즐길 수 있게 제작된 창작

공연으로, 캐리TV 소속의 유명 아티스트인 캐리와 엘리가 주연으로 출연한다.

특히 EQ(감성지능), SQ(사회지능) 발달의 에듀테인먼트 공연으로, 전문배우의 멋진 공중 에어리얼 실크 퍼포먼스와 초대형 LED의 3D 애니메이션, 그리고 화려한 특수효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제24회 효원사우회 회원사진전

일 시 | 12월 23일(목)-12월 30일(목) **제1전시실**
문 의 | 효원사우회 최상민 010-2564-7583

부산대학교 사진예술연구회를 거쳐 간 졸업생들이 결성한 효원사우회 회원전.

지난 1956년 설립한 부산대학교 사진예술연구회는 지역에 전공 사진학과가 생기기 이전부터 순수예술사진의 맥을 잇는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매년 회원전시회를 개최해오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아쉽게 전시를 열지 못한 효원사우회는 이번 회원전에서 아마추어 작가의 순수한 시선과 열정으로 담아낸 6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 출품작가/곽성삼(2기), 황순철(10기), 정의하(12기), 김형구(13기), 김영옥(14기), 김정선(15기) 등 30 여명



최상민 작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창작뮤지컬 메이사의 노래

일 시 |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3:00, 7:30
25일 토요일 오후 1: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문 의 | (주)하늘이엔티 1688-6675



UN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재건, 의료, 대민 지원을 담당하는 유엔 평화유지군을 소재로 다룬 창작뮤지컬 '메이사의 노래' 부산공연.

오랜 분쟁 지역인 가상의 국가 카무르와 그와 상반되는 문화를 가진 한국

을 배경으로, 카무르에서 나고 자란 소년 '라만'이 어린 시절 자신에게 꿈과 희망을 준 '메이사'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향해 K-POP 오디션에 참가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특히 '메이사의 노래'는 뮤지컬과 K-POP,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만나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는데, 특히 군복무중인 현직 아이들이 주인공 '라만' 역을 맡아 다양한 콘셉트의 무대를 소화한다.

리처드 용재 오닐 크리스마스 콘서트 선물

일 시 | 12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오랜 시간 그를 아껴온 한국 관객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선물'.

올해 초 제63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베스트 클래식 기악 독주(Best Classical Instrumental solo)' 부문을 수상하며 벅차오르는 큰 감동을 주었던 용재 오닐은 이번 무대에서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콩쿠르 우승자 문태국, '펜텀싱어 시즌3' 준우승 테너 존 노, 그리고 디토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해 동안 쉽 없이 달려 온 관객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선물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바흐, 텔레만, 파헬렐, 코렐리 등의 작품을 통해 디테일과 생동감을 불어넣은 정통 바로크 음악을 들려준다.

(사)부산음악협회 부산음악축제

일 시 | 12월 28일-29일 화-수요일 오후 7:00
대극장
문 의 | 부산음악협회 634-1295

부산음악협회가 매년 마련하는 부산음악축제로, 28일에는 베리스모(진실주의) 오페라의 대표작인 '팔리아치'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갈라무대가, 29일에는 부산지역 성악가들이 펼치는 성악앙상블의 밤이 펼쳐진다.

28일(화) 오페라 갈라콘서트

- 소프라노/김삼희, 김현주, 노이름, 박소영, 양근화, 정수정
- 메조소프라노/성미진
- 테너/김성, 장지현, 조윤환, 최용준, 허동권
- 바리톤/안상철, 장진웅, 채범석, 한정현
- 반주/김장미, 최승희

29일(수) 성악앙상블의 밤

- 소프라노/이나경, 정미순
- 메조소프라노/손혜은
- 테너/김현성, 서치환, 양승엽
- 바리톤/김기환, 김민형, 안세범
- 베이스/박순기
- 중창/Per Dio 중창팀(테너 김현성, 서치환·바리톤 김민형, 김기환)

부산시민회관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배시시 평등극장 웃는 남자

일 시 | 12월 29일 수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초등학생 이상 관람가능 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민회관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마련하는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상영회.

예술의전당 공연실황을 생생한 고화질의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이번 상영회에서는 제3회 한국뮤지컬 어워

즈에서 대상, 남우주연상, 무대예술상을 수상한 2018년 최고의 화제작 '웃는 남자'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신분 차별이 극심했던 17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인신매매단 콤포라치코스에 의해 아물지 않는 잔혹한 미소를 갖게 된 그윈플랜의 여정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찰을 담아낸 작품으로, 박강현, 양준모, 신영숙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잡은 작품이다.

12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금정문화회관이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로, 연말을 맞아 보다 풍성한 무대로 관객들과 만난다.



1일(제764회) 세 친구(因緣)
피아니스트 김은정, 소프라노 신민원, 바이올리니스트 겸 비올리스트 박소현 등 음악적 열정으로 뭉친 3명의 연주자들이 펼치는 송년무대.

모차르트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라단조 작품 397'를 비롯해 텔레만, 헨델, 스카를라티, 카치니, 타레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피아노와 바이올린, 비올라와 함께 어우러지는 소프라노 선율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마무리한다.

8일(제765회)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정기연주회
'겨울나그네, 죽음 그리고 소녀'
남자들만의 끈끈한 우정과 실력을 겸비한 연주

자들로 구성된 앙상블 코스모폴리탄의 무대. 바리톤 이태영의 협연으로 겨울에 어울리는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죽음과 소녀'를 들려준다.



15일(제766회) 동래줄풍류와 신민요
부산지역에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통 음악가들로 결성된 부산동래국악단의 무대.

가야금 명인 강태홍으로부터 전하는 민간줄풍류, 타 지역에 전승되는 민간줄풍류와 달리 화평하고 단아한 느낌을 주는 '동래줄풍류'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프로그램

동래줄풍류 중 하현·염불·타령·당학, 처녀총각, 조선팔경가, 용강타령, 멧쟁이춘풍, 꿀망태아리랑, 스리사리뽕바람, 노들강변, 천안삼거리, 도라지, 양산도, 울산큰애기, 신고산타령, 궁초댕기, 경북궁타령

- 가야금/최경철 • 장구/우정은
- 저대/안창섭 • 거문고/김현경
- 첼로/김석근

22일(제767회) 더 로즈 유니크 창단 기념
'크리스마스 시즌 콘서트'



소프라노 구현진, 이수진, 윤지영 등 세 명의 소프라노가 마련하는 '크리스마스 시즌 콘서트'. 우리 가곡을 비롯해 '넬라 판타지아'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한다.

- 피아노/구화진



29일(제768회) 홍선화 피아노 독주회
화려한 테크닉과 아름다운 음색으로 관객의 감성을 이끌어내는 피아니스트 홍선화 독주회.

프로그램

- 슈만/환상 소곡집
- 베토벤/피아노소나타 17번 '폭풍'
- 해설/김수진

부산성악가협회 12월엔 사랑을

일 시 | 12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



한 해의 마지막을 알리는 12월 첫날, 부산성악가협회가 마련하는 겨울 음악선물 '12월엔 사랑을'.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유명 뮤지컬 넘버와 영화음악, 캐롤곡을 선곡, 솔로와 중창 등 다양한 구성으로 해설과 함께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White Christmas,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Think of me',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Once upon a dream' 등 수곡

영도문화예술회관 특별기획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2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 독주회.

화려한 스케일, 호쾌한 타건과 기교를 뛰어넘어 음악의 본질에 접근하며 감동을 주는 연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백혜선은 지난 2002년 일본 사

이타마현 문화예술재단이 선정한 현존하는 세계 100대 피아니스트에 선정된 바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큰 업적을 보인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백혜선의 해설과 연주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월광', 차이콥스키 '사계', 라벨 '왈츠',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프랑스 오리지널뮤지컬 콘서트 앙코르

일 시 | 12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4일 토요일 오후 2:00, 7:00, 5일 일요일 오후 3: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6만원
문 의 | ㈜케이비이에스 02-6116-3777



웨스트엔드 역사상 최장기 공연, 전 세계 42개 도시, 6천 5백만명의 관객이 열광한 '레미제라블',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뮤지컬의 붐을 일으킨 '노트르담 드 파리', 그리고 현대적인 의상과 안무, 화려한 록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모차르트 오페라 락' 등 세계적인 프랑스 뮤지컬 세 작품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프랑스 오리지널 뮤지컬 콘서트.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프랑스 오리지널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 시공간을 넘나드는 사랑의 대서사시를 선보인다.

- 음악감독, 지휘/윤혁진
- 연주/아르텔필하모닉오케스트라

12월 스페이스 음 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음
문 의 | 스페이스 음 557-3369/www.spaceum.kr



3일(제438회) 퍼스트클래스&카트리나 크롬파네 콘서트

테너 장진규, 바리톤 강경원, 베이스 박상진으로 구성된 남성 트리오 성악앙상블 '퍼스트클래스'와 한국과 독일을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중인 소프라노

카트리나 크롬파네가 함께하는 무대.

■ 입장료/초대

10일(제439회) 최은아 쉐킷 리사이틀

재즈밴드 '러브레터'의 재즈보컬로 다년간 활동한 리더 최은아가 이끄는 '최은아 쉐킷'의 무대. 매혹적이면서도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재즈 특유의 멋과 연주를 한층 잘 살리는 최은아는 그동안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 초청연주, 부산국제영화제 축하연주, KBS TV 문화 속으로, 문화콘서트 등 수백 회 재즈 공연을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 입장료/전석 1만원

17일(제440회) 북 콘서트 : 동시, 움과 함께하다
시와 낭독, 음악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순수창작단체 S:creative의 북 콘서트.

- 테너/김성엽 • 소프라노/김은하
- 피아노/김예진
- 시인/정미혜, 김춘남
- 작곡/권유미, 김예진, 김시은

■ 입장료/전석 1만원



24일(제441회) JTBC '싱어게인' 가수 윤영아 콘서트

JTBC '싱어게인'을 통해 '여자 장준일 50호 가수'로 주목받은 가수 윤영아 콘서트.

윤영아는 지난 1990년 KBS 청소년 창작가요제에서 '오션지에 그리는 슬픔'으로 대상을 수상하며 가요계에 등장, '미니데이트', '고장난 시계처럼 내버려둬' 등을 통하여 제2의 '휘트니 휴스턴, 패티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뛰어난 가창력의 소유자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울리는 폭넓은 감성과 사랑의 무대를 선사한다.

■ 입장료/전석 2만원

음악풍경 창립 제8주년 기념 제34회 짜장콘서트

일 시 | 12월 4일 토요일 오후 4:0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로비

입장료 | 전석 1만원(사전예약, 선착순 40명)

문 의 | 음악풍경 987-5005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이 지난 2019년부터 매월, 음악의 저변확대와 지역 청년음악가 발굴을 위해 마련해온 짜장콘서트 2021년 마지막 무대.

특히 음악풍경 창립 제8주년을 기념해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스토리텔링

콘서트 '어른을 위한 동화: 수레바퀴 앞에서'가 선보인다.

누구도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음악과 이야기의 결합을 통해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양승엽, 소프라노 김민성, 배규린, 바리톤 시영민이 솔리스트로 출연하며, 연주와 반주는 진혜빈(바이올린), 박효진(첼로), 김아영(피아노)으로 구성된 앙상블 '프로무지카'가, 그리고 진행은 내레이터 고민지가 맡는다.

The Quattro String Quartet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5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The Quattro String Quartet
010-7502-9293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 장은아, 비올리스트 조진영, 첼리스트 정서은 등 부산, 경남지역에 활동중인 전문연주자들로 결성된 The Quattro String Quartet 정기연주회.

지난 2019년 정통클래식을 기반으로 두고 안정적인 음색과 풍부한 사운드를 지향하며 창단한 The Quattro String Quartet는 그동안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오고 있다. 팀명인 'Quattro'는 이탈리아어로 숫자 4를 뜻하며, 4명의 연주자가 각자의 개성을 하나로 모아 아름다운 앙상블을 들려주기 위해 불인 이름이다.

• 게스트/클라리네티스트 장재혁

제4회 CTS 부산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문 의 | CTS 부산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010-2640-2739



아름답고 순수한 찬양으로 감동을 전하는 CTS 부산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지난 2012년 합창을 통해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배려하며, 협동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 창단한 CTS 부산방송 소년소녀 합창단은 그동안 세 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지휘자 김민지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탱고음악을 대표하는 악기인 반도네온과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탱고음악의 매력을 전하는 친친탱고가 특별출연, 성가곡을 비롯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민지 • 반주/이지혜

2021 을숙도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다사다난했던 2021을 보내고 희망찬 2022를 맞이하기 위한 을숙도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자유로운 소리꾼 장사익과 품격있는 해설로도 사랑받는 소리꾼 오정해, 트럼펫연주자 최수용, 호른 연주자 이윤희 등 다양한

출연진과 40여명의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오랜만에 을숙도문화회관을 찾는 장사익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가요의 애잔한 정서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며 뛰어난 가창력과 독특한 창법으로 폭넓은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어울림 상설Series #32

수요상설 onStage

트리오 레자미 초청공연

일 시 | 12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국립창원대학교 김미연 교수를 대표로 부산시립 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장재혁, 전주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김근혜로 구성된 트리오 레자미의 무대.

프랑스어로 '소중한 친구들'이라는 뜻인 트리오 레자미는 서로 다른 악기 구성이지만 음악적 열정을 모아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음악을 함께 하자는 의지를 담아 구성된 팀으로, 2016년 창단 후 다양한 무대에서 따뜻한 감동과 여운이 있는 연주로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이번 무대는 지난해 베토벤 창단 250주년과 올해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베토벤과 피아졸라 곡으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3D 미디어아트 클래식 콘서트 사계

일 시 | 12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이탈리아 정부가 공모한 '예술과 기술 혁신의 만남'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은 3D 미디어아트 클래식 콘서트 사계.

듣기만 하는 클래식이 아닌, 3D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새로운 융·복합 공연이자 바로크 음악부터

20세기 포스트 미니멀리즘까지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최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움베르토 조르다노(Umberto Giordano Ensemble) 앙상블'과 두 명의 솔리스트, 그리고 세계적인 비주얼 아티스트 레안드로 슐모가 만나 피아졸라의 '향구의 봄',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프로그램과 감미로운 연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정준수 첼로 독주회

일 시 | 12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정준수 010-3146-8434



현재 서울 신포니에타 초빙수석, 대구 올림챔버리더, (사)Die Cellisten, Solisten Ensemble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정준수 독주회.

연세대학교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아찰트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대학원을 수료한 정준수는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중국 및 국내에서 다수의 독주회와 협연을 가졌으며, 실내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서울, 춘천,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김해 등지에서 앙상블의 매력을 알리는데 많은 열정을 쏟아왔다.

'로맨틱 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와 라흐마니노프, 프랑크의 첼로 소나타를 들려준다.

• 피아노/성민주

2021 제4회 굿모닝 콘서트

4현의 사랑과 낭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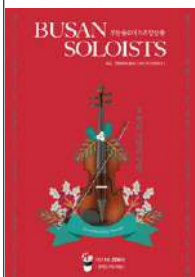
일 시 |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블랙업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



울속도문화회관이 개관 이후 처음 선보이는 품격 있는 해설과 음악이 있는 브런치 무대 '굿모닝 콘서트' 12월 무대.

주변이공원으로 둘러싸인 울속도문화회관에서 커피, 공연, 산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 공연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젊은 음악, 새로운 시도, 공감할 수 있는 클래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산솔로이스츠가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곡들을 들려준다.

• 해설/안희성(MBC부산문화방송 아나운서)

글로벌아트홀 초청

하정민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7: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제32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전체대상 및 부산광역시시장상 수상자인 피아니스트 하정민 초청 피아노 리사이틀.

'일 드 프랑스 국제 피아노콩쿠르' 1위 등 다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하정민은 현재 경성

대학교 대학원에서 Alexey Lebedev를 사사하고 있다.

제82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일 시 |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4: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매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나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2021년 마지막 무대.

동의대학교 손명균 교수가 지휘하는 부산의 대표적 오케스트라인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의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무

대에서는 인제대학교 교수이자 첼리스트 양옥진, 바리톤 허중훈의 협연으로 우리 귀에 친숙한 명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오케스트라와 4대의 그랜드피아노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를 통해 한해를 마무리하며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달래본다.

뉴욕 카네기홀 데뷔 20주년 기념 양옥진 첼로 독주회

일 시 |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카카오톡 @ipbchamber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첼리스트 양옥진 교수가 뉴욕 카네기홀 데뷔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2007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부산과 인연을 맺은 후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산에서의 발자취를 남겨온 양옥진은 이번 무대에서 지난 10년 동안 함께 연주해 온 피아니스트 박민선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시절 동고동락했던 전영수, 박희철, 부산을 대표하는 연주자로 성장한 제자 변은석, 김새로미,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 정서진과 함께 한다.

- 피아노/박민선 • 드럼/전영수
- 더블베이스/박희철
- 첼로/변은석, 김새로미, 정서진

문화유목집단 '동행' 창립기념 음악회

일 시 | 12월 12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문화유목집단 동행 010-2026-8280



부산의 예술인들이 모여 공연예술 문화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뭉친 문화유목집단 '동행' 창립 기념 음악회. '동행'은 세상의 사랑과 평화를 위해 공연 예술을 관객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예술인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동행하는 마음, 그리고 예술의 소중함을 공유하며 함께 누리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뭉친 단체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동행'의 첫 출발을 알린다.

- 출연/박승웅(기타), 양승엽(테너), 서영교(색소폰), 윤슬 현악앙상블, 윤슬 타악앙상블

현악4중주 BRIDGE 제4회 정기연주회 Russia Romance

일 시 | 12월 12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의 | 현악4중주 브릿지 010-5500-5406



바이올리니스트 김채원, 나리, 비올리스트 이정우, 첼리스트 이경성 등 4명의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현악4중주 BRIDGE의 네 번째 정기 연주회.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클래식과 클래식을 보다 쉽고 즐겁게 듣고 싶은 관객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BRIDGE'는 지난 2011년 교육청 주관 방과 후 찾아가는 연주를 시작으로 2013년 창단연주회, 통영국제음악제 등 다수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러시아 로맨스'라는 부제로, 러시아 낭만음악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는 차이콥스키 '현악4중주 제1번', 보로딘 '현악4중주 제2번' 전 악장을 들려준다.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 기념 콘서트 피아졸라 100주년 킨트

일 시 |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 NWA MUSIC 010-4036-1383



누에보 탱고의 창시자 피아졸라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특별한 무대. 아르헨티나 탱고 음악계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2019년 라틴 그래미 어워드에서 탱고 앨범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사라테와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4인의 반도네온 거장 중 한명인 반도네오니스트 라우타로 그레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네스토르 마르코니 킨트', '킨테로 레알'의 기타리스트 에스테반 팔라벨라, 미국, 아르헨티나에서 지휘자 및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베이스리스트 파블로 모타, 그리고 한국출신의 세계적인 탱고바이올리니스트 안토니오 유로 구성된 '피아졸라 100주년 킨트'가 피아졸라의 음악세계로 안내한다.

을숙도문화회관 2021 해피콘서트

일 시 | 12월 16일-17일 목-금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서부산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을숙도문화회관이 클래식 입문자를 위해 친숙한 프로그램으로 마련하는 2021 해피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에델현악사중주단과 오네스토뮤직앙상블이 출연, 영상과 해설이 있는 테마음악회로 꾸민다.

프로그램
16일(목) 에델현악사중주 '음악으로 듣는 장르는 초월한 사랑이야기'
17일(금) 오네스토뮤직앙상블 '기쁨과 감동의 힐링콘서트'

가족오페라 산타클로스는 재판 중

일 시 | 12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18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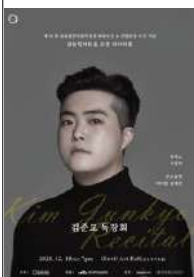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오페라 산타클로스는 재판 중. 지난 1951년 크리스마스 이브, 프랑스 디종에서 발생한 산타클로스의 단독 재판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산타클로스가 재판을 받는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어린이들에게 꿈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되돌아보게 하는 가족 오페라이다. 특히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작곡가 로베르토 몰리넬리의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음악이 함께하며 기존의 정형적인 오페라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틀에 박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 연출/노연정
- 출연/나현규, 이태영, 이승은, 김미정, 황성아, 이연진, 정현빈, 박서영

글로벌아트홀 초청 테너 김준고 독창회

일 시 |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7: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제31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최우수상, 신영순상 수상자인 미성의 테너 김준고 독창회. 어려서부터 뛰어난 기량을 선보여온 김준고는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

과에 재학 중이다.

- 피아노/이정혁
- 찬조출연/바리톤 김태한

2021 예술공감 제5회 플루트로 듣는 오페라

일 시 |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3천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



지난 2017년 창단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플루트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뮤토 플루트와 함께하는 울속도문화회관 예술공감 다섯 번째 무대.

이번 무대는 헨델 오페라 '리날도', 벨리니 오페라 '몽유병의 여인' 등 시대별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오페라 아리아를 편곡, 플루트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여러 장르의 음악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다.

'뮤토(muto)'는 라틴어로 '변화하다', '진화하다'라는 뜻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의미로 매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악보집 출간 기념 2021 Crescendo of GloVil 복 있는 사람

일 시 |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5:00,
24일 금요일 오후 6:00(1부),
오후 7:30(2부)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부산아시아게임 음악작곡가로 우리에게 알려진 작곡가 신영순의 악보집 출간을 기념해 마련하는 무대.

연주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글로벌아트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시편 전편 150편을 작곡하는 긴 여정을 행진하고 있는 창작 작품 시리즈를 만날 수 있다.

특히 독창곡집 '복 있는 사람'에 수록된 전곡을 연주하며 녹음 녹화도 함께 진행된다.

- 피아노/김민선
- 소프라노/정지민, 주선영
- 테너/김준고, 한지훈 • 바리톤/양동화

제482회 가람화요음악회 클래식&크로스오버 클래식

일 시 |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7:00 가람아트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가람아트홀 010-2113-8604



30년 역사의 아름다운 공연장 가람아트홀이 마련하는 제482회 가람화요음악회.

피아니스트 나누리, 최영민의 무대로 꾸며지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베토벤, 쇼팽, 리스트, 슈베르트 등 클래식 명곡을 비롯해

최영민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나누리는 어려서부터 국내외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베를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영민은 2014년 'Prelude'를 시작으로 20여개의 앨범을 통해 200여곡이 넘는 자작곡을 발표했으며, 현재 소누스레코즈 음악감독, MEG양상블 편곡자, Duo Umanza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탱고 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일 시 | 12월 28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 5천원(커피포함)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오전 11시 다채로운 장르와 주제로 열리는 금정문화회관의 특별한 무대 '11시 브런치 콘서트' 2021년 마지막 무대.

2021년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을 맞아 탱고가 시작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나는 이번 무대에서는 유사량(보컬), 오은철(피아노), 김유성(콘트라베이스), 윤종수(바이올린), 임시내(반도네온), 박윤우(기타)가 출연, 탱고음악의 세계로 이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21년 동안 KBS클래식 FM '재즈수첩'을 진행하고 있는 재즈칼럼니스트 황덕호가 깊이 있는 해설로 재즈의 매력을 전한다.

The e-플림 콘서트 VI Adieu 2021 송년음악회 영화 속 오페라&뮤지컬

일 시 | 12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부산지역 성악인들의 모임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온 벨리시미 성악연구회와 함께하는 해운대문화회관 The e-플림 콘서트 여섯 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속에서 만날 수 있었던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로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송년무대를 선사한다.

- 소프라노/이은미, 이윤선, 장은영, 정혜리, 김기원, 백성희, 이지영
- 메조소프라노/이지영
- 테너/서훈하, 박동운
- 피아노/최성근
- 바이올린/이영주 • 첼로/박용

2021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시네마 뮤직 파라다이스 12월 소리꾼 이자람, 판소리가 영화를 만났을 때

일 시 | 12월 29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연출, 배우, 음악감독, 뮤지션 등 다방면으로 활약 중인 이자람이 판소리와 영화를 주제로 펼치는 특별한 무대.

이자람은 창작 판소리 '사천가', '억척가', '이방인의 노래' 등 희곡이나 근현대 소설을 판소리로 변주하여 이자람만의 장르를 개척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는 이자람과 특별 게스트와 함께 하는 대담을 통해 판소리와 영화, 두 장르 고유의 맛과 미학을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관객과의 대화, 시연으로 꾸며진다.

• 교수/이준형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 2021 송년음악회 Happy New Year

일 시 | 12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2021년을 보내면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2021 송년음악회 'Happy New Year'.

남성중창단 해븐싱어즈, 소프라노 권소리,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다채로운 곡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특별한 송년무대를 선사한다.

테너 홍지형, 바리톤 정승화, 베이스 권영기 등 부산을 대표하는 남성 성악가로 구성된 해븐 싱어즈는 정통 클래식 음악에서부터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품격과 즐거움을 갖춘 폭 넓은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매년 최고의 무대를 선사해오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음악 콘서트

일 시 |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6:00,
2022년 1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 S석 8만원, A석 5만원
문 의 | 드림씨어터 1833-3755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음악을 선곡, 영화의 진한 감동을 다시 한번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 '할리우드 영화음악 콘서트' 부산무대.

울림 있는 목소리의 월드 클래스 바리톤 김주택과

마음을 울리는 국내 최고 뮤지컬 배우 박강현, 정유지,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의 마음을 훔치는 피아니스트 김재원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섬세하고 완벽한 하모니의 지휘자 이승원이 지휘하는 60인조 오케스트라 WE필하모닉오케스트라&WE밴드의 풍부한 사운드와 화려한 무대연출로 영화의 감동을 생생하게 재현해낸다.

연극

코믹연극 검정고무신

일 시 | 5월 5일(수)-12월 31일(금)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12/21일-23일 오후
4:00, 7:30, 12/24일-25일 오후 2:00,
5:00, 8:00, 12/31일 오후 4:00, 7:30,
월-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탈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미니티켓 1600-1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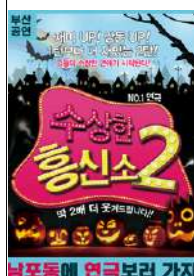


지난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연극 '검정고무신'.

진학도 포기한 채 할머니가 캐온 약초를 팔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직한 첫째 영일, 학교 가는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철부지 말썽쟁이 둘째 영삼,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도 못 가고 살림만 하는게 불만인 똑순이 셋째 영실,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삼남매의 고군분투기가 폭소를 자아내면서도 어느 순간 진한 감동을 전한다.

연극 수상한 흥신소 2탄

일 시 | 9월 2일(목)-2022년 1월 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난 2014년 대학로에서 초연된 후 전국 28개 도시에서 흥행에 성공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웰메이드 창작극 '수상한 흥신소' 두 번째 무대.

공감할 수 있는 소재와 탄탄한 구성, 시시각각 터지는 웃음으로 그동안 200만 이상 관람한 스테디셀러 연극으로 자리잡은 '수상한 흥신소'는 이번 2탄에서 더욱 더 발달하고 유쾌해진 로맨틱 코미디로 관객들과 만난다.

영혼을 보는 청년 오상우, 그는 영혼들의 이르지 못한 소원을 들어주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어느 날 서비스센터 앞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의 범인을 찾기 위해 봉투를 뒤지던 그는 의문의 버킷리스트를 발견하게 되고 이후 그가 벌인 일로 견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마는데...

연극 편의점 진상들

일 시 | 10월 14일(목)-2022년 1월 16일(일) 평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요일 오후 2:30, 5:00(12월 24일·31일
오후 4:00, 7:00, 12월 25일 오후 2:00,
4:00, 6:00,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신춘문예 등단작가인 최보윤과 연극 '체인징 파트너', '오늘도 극한직업' 등 코미디극의 히트 연출가 장세윤이 의기투합해 제작한 신작 코미디극.

번번히 취업에 실패하며 가족들 눈치보기 바쁜 최준생 상식은 담배값이라도

벌자는 마음으로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고 어느날 당점금 30억의 로또 1등 중이 손에 들어온다. 퇴근만 기다리는 상식 앞에 이 지역 최강의 빌런, 일명 K손놈들이 들이닥치고... 편의점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K손놈들의 진상과 쫓겨난 로또 사수 대작전이 관객들을 웃음세게로 이끈다.

로맨틱 코미디극 러브액츄얼리

일 시 | 11월 5일(금)-2022년 1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12/24일 오후 5:00, 8:00, 12/25일 오후 2:00,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주)플레이더 부산 1600-0316



커플 선호도 1위, 데이트 연극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로맨틱 코미디극 '러브액츄얼리'.

100일 기념 1박2일 여행을 계획하는 캠퍼스 커플인 수진과 재운, 함께 있는 시간이 지루해지는 재운과 그 모습이 속상한 수진,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세월을 맞은 공원 벤치에서 예전 추억을 떠올리는 재운과 수진 등 기다리는 시간도 설레는 100일 커플, 같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로운 1,000일 커플, 가족 인지 애인인지 헷갈리는 10년차 커플 등 모든 커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 연애사가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뮤지컬 론더폴 투나잇

일 시 | 12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4일 토요일
오후 3:00, 7:30, 5일 일요일 오후 2:00,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1층) 7만원, S석(2층) 5만원

문 의 |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623-0678



동네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술집을 배경으로 퇴근 후 마땅히 갈 곳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풀어내는 평범한 이야기를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뮤지컬 '론더폴 투나잇'.

지난 2013년 초연된 후 관객들의 웃음과 눈물, 공감을 얻으며 2018년까지 5차례 앵콜공연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연극을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으로 집도, 가족도, 친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허무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부산'의 색깔을 담아 한편의 맛깔스러운 뮤지컬로 선보인다.

- 연출/구현욱 • 대본, 기획/김영민
- 출연/이혁우, 김도한, 서보기, 박인화, 이대희, 김수희, 이윤미, 장재석 외

스냅 SNAP

일 시 | 12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R석 3만5천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그루잠 프로덕션 070-8733-1647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해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공연예술단체로 발돋움한 '그루잠 프로덕션'이 제작한 미스터리 매직 퍼포먼스 '스냅 SNAP'.

신기한 마술을 매개로 마임, 웨도우그래피, 미디어아트, 신체극 등을 동화

적인 스토리텔링과 결합한 난버벌 퍼포먼스로, 세계마술대회(FISM)에서 수상한 실력과 마술사들이 출연한다.

특히 마술사를 부각시키는 일반적인 마술공연과 달리 마술을 관객들의 상상력과 미스터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마술에 초현실주의적 무대장치와 영화적 특수효과를 결합시켜 관객들에게 극적 몰입을 제공한다.

예술집단C 멤(MEM)

일 시 | 12월 9일-10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민주공원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예술집단C 010-2591-0624

지난 2014년 10월 연극, 무용, 전통연희, 미술, 영상, 음악 등 다 장르 아티스트들간의 수평적인 협업 작업을 통해 프로 젝트형 공연을 창작, 기획하기 위해 설립된 예술집단C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난민의 이야기, 인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인간의 신체와 극을 통해 표현하는 창작극 '멤(MEM)'을 선보인다.

'멤'은 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13번째 알파벳으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지만 난민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되는 두려움의 존재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난민'을 풀어낸다.

- 작, 연출/황지선 • 음악감독/타무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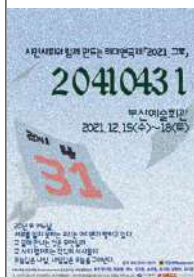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테마연극제 2021, 그 후 20410431

일 시 | 12월 15일 수요일 오후 7:00, 16일-17일
목-금요일 오후 8:00, 18일 토요일 오후 2:00, 5: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 (13세 이상 관람, 청소년 50%할인, 예약필수)

문 의 | 극단새벽 245-5919,
saebyeok1984.modoo.at



지난해 '사선'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테마연극제에서는 '2021, 그 후'라는 테마로, 연극교육과 테마교육과정, 그리고 4주간의 창작과정을 거쳐 연극 예술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기후위기, 팬데믹, 4차 산업 등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과 예정된 위기를,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고민하여 창작한 '종달새의 비상', '연우야 뭐하니', '폭우' 등 3개의 에피소드 작품을 선보인다.

연극제 명인 '20410431'은 20년 뒤인 2041년 존재하지 않는 4월 31일을 뜻한다.

- 극작/공동창작 • 예술감독/이성민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일 시 | 12월 18일-19일, 25일-26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부산MBC 드림홀**

입장료 | 덕지석 6만원(12개월 이상 관람가능)

문 의 | (주)쌍크브리지 1688-6675



아동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의 동명의 그림책을 뮤지컬로 제작한 '장수탕 선녀님'.

'장수탕 선녀님'은 엄마를 따라 오래된 동네 목욕탕 장수탕에 간 덕지가 냉탕

에서 만난 이상한 할머니 선녀님과 한바탕 신나게 놀며 친구가 되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부모 세대에겐 친근하지만 자녀 세대에게는 낯선 공간인 오래된 목욕탕에서 펼쳐지는 신비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억을 나눈다.

특히 공연 속 덕지가 선녀님과 만나면서 벌어지는 신나는 냉탕 놀이와 신비한 모험은 영상, 조명, 특수 효과에 힘입어 관객들을 판타지 세상 속으로 이끌고, 아름다운 음악은 원작이 가진 따뜻한 감동을 배가시킨다.

(재)부산문화재단 재지원사업공모 선정작 극단 액터스 제34회 정기공연 달이 물로 걸어오듯

일 시 | 12월 22일-24일 수-금요일 오후 7:30,
25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전석 2만원(15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극단 액터스 010-4868-2862



공연 지원의 일화성이 가지는 한계를 벗어나고 우수 공연작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부산문화재단이 시행하는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재지원사업 공모작으로 선정된 극단 액터스의 창작극 '달이 물로 걸어오듯'.

아내와 함께 의붓어머니와 딸을 살해하고 암매장했던 한 남자의 실제 사건을 소재로 쓰여진 이번 작품은 존속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소재를 통해 인간의 내면과 인간 상호간의 관계, 진실과 화해라는 주제를 통해 오늘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켜 보는 작품이다.

- 작/고연옥 • 연출/손병태
- 출연/호민, 이경진, 구민주, 박유진, 강원재, 이재찬

락뮤지컬 프리즌 Transfe

일 시 |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25일 토요일 오후 2:00, 6:00, 26일 일요일 오후 2: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1층) 5만원, S석(2층) 4만원

문 의 | 극단 코스모스 1688-3820



컬투 정찬우가 제작한 창작 뮤지컬 '프리즌'이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락 뮤지컬 '프리즌 Transfer'. 사기를 당하면서 은행을 털게 된 가수 지망생 청년들은 훗날 현금을 숨겨놓고 감옥에 가게 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탈옥에 성공해 은행을 찾지만 그 자리에는 은행 대신 클럽이 들어서 있다. 숨겨진 돈을 찾기 위해 클럽에 밴드로 취직한 청년들은 돈의 행방은 물론 체 시간만 흐르고 밴드는 점점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는데... 전설적인 미국 록밴드 '건스 앤 로지스'의 탄생 비화를 각색해서 제작한 '프리즌'은 은행을 탈다 감옥에 들어가기에 세 청년이 교도소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특히 락 밴드의 콘서트 현장을 보는 듯한 생생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프렌치 오리지널-부산

일 시 | 12월 30일(목)-2022년 1월 16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6:00,
일요일 오후 2:00(12/31일 오후 3:00,
7:30, 월요일 공연없음)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석, OP석 16만원, R석 13만원

| S석 11만원, A석 8만원

문 의 |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950-6500



역대 최강 캐스트로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프렌치 오리지널이 선사하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부산공연.

지난해 코로나19로 조기 종연을 겪은 뒤 1년만에 한국 관객들을 찾는 프렌치 오리지널의 이번 무대는 프랑스 원어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운율의 음악과 노트르담 대성당을 상징하는 30톤이 넘는 압도적이고 웅장한 무대, 눈길을 사로잡는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현대무용 등 무대 예술의 절정을 보여준다.

무용

부산발레시어터 호두까기 인형

일 시 | 12월 22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매년 연말이면 전 세계 무대에 울려지는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 '호두까기 인형'.

차이콥스키의 고전발레 3대 걸작으로 꼽히는 '호두까기인형'은 189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극장에서 처음

무대에 올려진 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공연이다. 특히 동심을 자극하는 이야기 속에서 화려한 발레 테크닉과 동화 속 나라를 연상케 하는 무대와 의상, 그리고 차이콥스키의 특별한 음악선물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전 세계 공연장에서 공연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2014년 창단된 후 부산지역의 발레 활성화에 위해 활동해온 부산발레시어터가 환상적인 무대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영화

어울림 상설Series #31

Sac on Screen 영상으로 만나는 지젤

일 시 | 12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예매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서울 예술의전당(SAC)의 우수 예술 콘텐츠를 영상으로 만나는 SAC on Screen '영상으로 만나는 지젤'.

지난 1841년 파리 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18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발레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낭만 발레의 대표작 '지젤'은 명랑하고 순박한 시골 소녀 지젤이 사랑의 배신에 괴로워하다 혼령이 된 후에도 자신을 배신했던 연인을 지키려는 송고한 사랑을 담고있는 작품이다.

이번 작품 '지젤'은 유니버설발레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지난 2014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 작품으로, 지젤 역에 황혜민, 알브레히트 역에 엄재용이 출연했으며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단체로 참여했다.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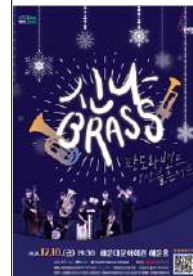
신나 Brass 판도라밴드 콘서트

일 시 |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최고의 뮤지션으로 구성된 재즈밴드 판도라의 무대.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멤버들간의 탄탄한 호흡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온 판도라는 이번 무대에서 송년무대에 잘 어울리는 유러피안 재즈로 관객들과 만난다.

2021 송년콘서트 추가열밴드 콘서트

일 시 |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 4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 싱어게인 TOP3 전국투어 콘서트

일 시 |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2:00, 7: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9만9천원
문의 | (주)밝은누리 1566-9621

2021 정미조X말로X박주원 〈THE 3 LIVE〉

일 시 | 12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2021 어반자카파 전국투어 콘서트 겨울

일 시 |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6:00,
19일 일요일 오후 5: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11만원
문의 | (주)WSM 1566-5490

2021 김동명 단독 콘서트 in busan ; the ROCK

일 시 |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2:00, 오후 6: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석 11만9천원, R석 10만9천원
문의 | 주앤그룹 1600-2436

2021 정승환의 안녕 겨울: 다시 여기, 우리

일 시 | 12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백스코 오디오리움
입장료 | 전석 12만1천원
문의 | (주)WSM 1566-5490

영도문화예술회관 명작곡연시리즈 12 2021 송년 트롯 콘서트

일 시 |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6:00,
19일 일요일 오후 5: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11만원
문의 | (주)WSM 1566-5490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한다.

2021년의 끝자락에서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마련하는 특별한 송년무대 '2021 송년 트롯 콘서트'. '안동역에서'의 진성, 트롯 전국체전의 우승자 진해성, 천태만상으로 역주행 중인 윤수현을 초청,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2021 노을 연말 투어 콘서트 노을이 내린 밤

일 시 |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7:00, 11: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3만2천원,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문의 | (주)밝은누리 1566-9621

김창완밴드 콘서트 in 부산

일 시 | 2022년 1월 2일 일요일 오후 5: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의 | 드림씨어터 1833-3755

행사

김옥균의 영광클래식아카데미 클래식콘서트홀&월드뮤직감상회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3개월 수강료 12만원
문의 | 영광도서 070-4020-2540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음악감상강좌 '영광클래식아카데미'.

매주 화요일에는 '월드뮤직' 감상회, 목요일에는 '정통클래식음악' 감상회가 개최된다.

월드뮤직 프로그램

추모특집-한국의 크로스오버클래식 '향수'의 가수 이동원의 음악세계
안드레아 보첼리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음악영화 시리즈 '조이폴 노이즈' 감독판 보기
사라 브라이트만의 크리스마스콘서트

클래식 콘서트홀 프로그램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전막 감상
피아노의 시인 쇼팽 특집 '쇼팽의 생가 다큐기행'
뮤지컬 '미스 사이공' 30주년 다시 보기
앙드레 류의 '홀 포 크리스마스' 콘서트
베토벤-합창교향곡, 합창환상곡

제170회 알바트로스 詩낭송콘서트 송년 주제 詩 낭송회

일 시 |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알바트로스 詩낭송문학회 회장
010-6367-0149

• 특별출연/소프라노 권소라

12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5천원)
문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12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교향곡, 협주곡 콘서트 실황을, 매주 금요일에는 연말 특집으로 오페라 시리즈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상세한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오페라바움에서는 매주 이어지는 성악가의 땀방울과 작은 소리까지 놓치지 않는 최신 영상물을 통해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오페라 감상을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

3일(금) 베르디 '운명의 힘'
10일(금) 레하르 '즐거운 미망인'
17일(금) 오펜바흐 '지옥의 오르페'
24일(금) 푸치니 '라보엠'
31일(금) 요한 슈트라우스 '박쥐'

12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화요일 오전 11:00,
15일(목) 오전 11:00, 27일(월) 오후 2:00
시네바움

입장료 | 강좌당 1만5천원
(소수 정원제, 문자 예약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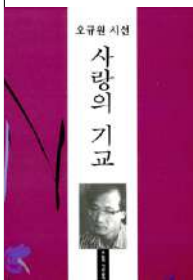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6일(월) 오후 7:00 트렌드를 뜨겁게 달군 한국
의 패션스타(1) 윤복희, 펄 시스터즈, 서태지,
이효리, 윤여정.

• 강사/진경옥(패션 디자이너, 동명대 명예교수)

7일(화), 14일(화), 21일(화), 28일(화) 오전 11:00
윤산의 논어 아카데미

•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13일(월) 오후 7:00 일본
신화의 두 얼굴 '인간이
되어 간 신들'

• 강사/안수현(부산가톨
릭대 인문학연구
소 연구위원)

15일(목) 오전 11:00 낭송
과 낭독 그리고 토크 '사
랑의 기교(오규원 시선)'

• 진행/김비주, 박노경

20일(월) 오후 7:00 삼국지 인물시리즈

'忠과 智의 재상, 제갈량'

• 강사/김준권(위당역사사상연구소 소장)

27일(월) 오후 2:00 집단지성의 Humanitas

'비극의 세 지류'

• 강사/양순철(서울 기독교대학교 겸임교수)

27일(월) 오후 7:00 서양 고전주의 시대

'미술과 음악'

• 강사/정해성(문화평론가, 청도 라움 Y 대표)

2021 부산인문프로젝트

인문투어 4.다크투어

임란과 6·25의 상흔을 찾아서

일 시 | 11월 10일(수)-12월 8일(수) 매주 수요일
오전 9:30 **부산지역 곳곳**

입장료 | 무료(사전예약)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12월 1일(수) 정공단&증산왜성&이종섭 테마거리
역사기행과 트레킹

12월 8일(수) 임시수도기념관&석당박물관과 감
천마을, 최민식 사진갤러리 트레킹

전시

고은사진미술관 기획전 사람의 그때

일 시 | 9월 11일(토)-12월 26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사진의 기록적 가치와 예
술적 의미를 가장 솔직한
사진창작으로 변함없이
펼치고 있는 강운구 선생
의 인물사진전.

'사람의 그때'는 지난 50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
진가 강운구 선생이 만난
인연의 발자취를 지속적

으로 기록한 전시로, 문인, 화가 등 인물사진 163
점이 전시된다.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오노프 ONOOFF

일 시 | 9월 15일(수)-2022년 2월 20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H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금정문화회관 연말기획전 다시 연결하기 RE_ CONNECT

일 시 | 11월 12일(금)-12월 24일(금)

**금정문화회관 전시실 및 로비, 복도전
시장**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김대홍, 조미애, 이원숙 등 해외 거주 작가 3인과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명, 고석, 김지
오, 배지민 등 4인의 회화, 설치미술, 영상 등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기간에는 작품들과 연계한 다양한 관람객 참
여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일·공휴일
휴관)

이인우 개인전

역설의 섬, 가덕도

일 시 | 11월 26일(금)-12월 4일(토)

또따또가 갤러리

문 의 | 또따또가 갤러리 469-1978

황현일 사진전 나는 해녀다

일 시 | 12월 3일(금)-12월 9일(목)

갤러리 한스

문 의 | 김여나 010-5534-2966

기장군에 있는 18개의 갯마을을 배경으로 6명
의 해녀 이야기를 담은 책 '나는 해녀다-기장군 1
세대 해녀자서전(김여나 글, 황현일 사진)' 발간
을 기념하여 열리는 황현일 사진전.

전시시간인 12월 4일 오후 3시 갤러리 한스에서
는 작가와의 만남이 펼쳐진다.



선유EXHIBITION 시리즈5

조란주 초대전 하얀 시간-NULL

일 시 | 12월 6일(월)-12월 22일(수)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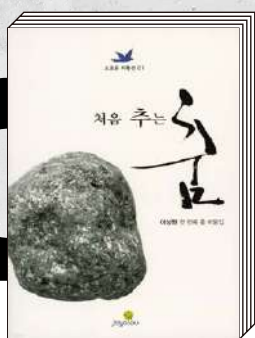
현재 창작공간 마재고개
14 기획실장, 부산시 미술
장식품 심의위원, 부산미
술협회 보각분과, 동아대
학교 미술학과 외래강사
로 활동하고 있는 조란주
초대전.

편리한 삶의 대가로 자연
환경의 유효기간을 단축

하면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자연환경이
위기를 맞고 있다.

조란주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
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환경을 위한 노력의 준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주말 휴관)



춤 추는 춤

이상헌 지음 / SOYOOO
238p / 1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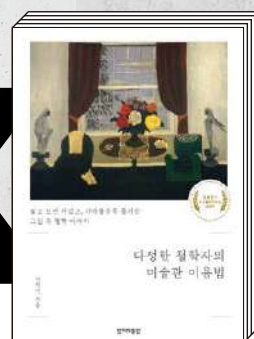
춤 비평가이자 공연기획자인 이상헌 씨의 첫 번째 춤 비평집.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무대 디자인으로 공연 판과 인연을 맺은 후, 백여 편의 공연에 관여하며 활동했다. 부산대학교에서 공연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정치·미학 연구회 활동으로 미학, 철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늘 무대를 지켜보던 이상헌 씨는 2017년 한국 춤비평가회 비평 신인상 공모를 통해 춤 비평을 시작했다. 국제신문 춤 칼럼, 부산문화회관의 <예술의 초대>, 부산예총의 <예술부산>, 부산문화재단의 <공감, 그리고>, 민주주의사회연구소의 <성찰과 전망> 등 부산의 다양한 매체에 공연 리뷰와 시론을 발표했다. 이 책에는 대부분 부산 무대에 오른 공연, 부산 춤꾼의 작품, 부산 춤판의 상황을 담고 있다. 여러 지면을 통해 그의 춤 비평을 읽었던 독자들로서는 한 권으로 만날 수 있어 반가운 책이다. 이상헌 씨는 박제화된 상설공연장이 아니라, 거리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춤을 기록했다. 그 기록들은 역사의 현장, 삶의 현장, 투쟁의 현장에서 춤이라는 예술적 행위로 세상을 향해 제기하는 문제와 메시지를 생각하게 한다. 춤꾼, 안무가, 무대설치가, 공연 기록 사진가에게도 시선이 닿아 있는 종합예술비평이다.



나는 해녀다- 기장군 1세대 해녀 자서전

김여나 글, 황현일 사진 / 참놀

부산의 바다에도 해녀가 있다. 기장군에 있는 18개의 갯마을을 배경으로 6명의 해녀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다. 2018년 제21회 부산아동문학 동화부문 신인상을 수상한 김여나 작가가 글을 쓰고, 약 20여년간 <기장사람들> 편집장으로 활동해 온 황현일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었다. 두 작가는 이 책을 위해 18개월 동안 함께 작업했다. 기획부터 시작해 취재와 글, 사진, 디자인, 편집, 교정, 인쇄까지 두 작가의 정성이 책에 가득하다. 책을 펼치면 기장 갯마을의 해녀를 만났던 두 작가의 마음과 발걸음이 느껴진다. 해녀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한다. 부산을 비롯해 동해안 지역에도 해녀들이 있지만, 우리는 해녀라는 말을 들으면 제주 해녀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또한 제주 해녀에 관해서는 자서전을 비롯해 다양한 책들이 있다. 하지만 내륙지방의 해녀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은 처음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의 가치가 크다. 김여나 작가는 <기장군 최고령 출항 1세대 해녀 김복례 자서전>을 펴낸바 있다. 김복례 할머니가 고향인 제주를 떠나 부산 기장군에 정착하게 된 과정과 정착 이후 삶을 기록한 책이다. 이번 책에서도 기장 해녀에 관한 작가의 깊은 관심이 담겨있다.



다정한 철학자의 미술관 이용법

이진민 지음 / 한겨레출판
292p / 1만 8천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 '아담의 창조'는 유명한 그림이다. 아담과 신의 손가락이 만나는 장면은 광고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에서 패러디 될 정도이다. 이 유명한 그림을 철학의 프리즘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단. 전지전능한 신과 유한한 인간의 만남을 그렸기 때문이다. 신과 인간의 관계에 따라 서양 문화권에서는 시대가 나뉘어졌다. 고대, 중세, 르네상스, 근대와 그 이후, 그 구분은 서양철학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진민 씨는 미술관에 '놀러 가는' 철학자이다. 미술을 전혀 모른 채 미술관에서 놀았다는 그는 그림이야말로 철학의 가장 좋은 '스위치'라고 말한다. 이 책은 미술이라는 스위치를 통해 철학이라는 집에 불을 밝혀준다. 저자는 어떤 그림에 철학적 해석을 정당처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림을 도구 삼아 이런저런 생각을 싣듯 펼쳐볼 수 있는 놀이를 한다. 미술과 철학이 만나는 책장을 넘기다보면 하나의 작품을 눈에 담은 순간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우주가 뿔어나가는 게 보인다. 그림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일은 그 자체로 즐거울 뿐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말해주는 책이다.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 하는 'ART Project A to Z' 성료

(재)부산문화회관의 2021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인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ART Project A to Z'가 10월 16일 3기생 수업을 끝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ART Project A to Z'는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전체 교육과정은 스토리랩, 테크랩, 움직임랩, 뮤직랩, 판타지랩 등 총 5개 과정, 매회 8회차로 진행되었다.

스토리랩은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퍼포먼스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본캐와 부캐의 개념을 차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부캐를 통해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을 상상하고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자연을 떠올리는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테크랩에서는 실물 화상기, 미디어 파사드 등 스크린을 통한 움직임 퍼포먼스를 실험하고 키네마스터, 매직 비디오 메이커를 이용, 영상을 제작해보는 작업을 진행하여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움직임랩에서는

고리풀기, 술래잡기 등 단순한 움직임이 예술이 되는 과정을 몸으로 느끼고 라이트 드로잉을 통해 몸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내는 시간을 가졌다. 뮤직랩, 판타지랩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수강생들이 직접 음악과 미디어 융합 움직임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부산시립예술단 단원과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3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7월 수업 시작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강의 일정과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전체 일정 중 3회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교육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강생들이 악조건 속에서 전체 일정을 소화하고 마지막 8회차에서 전체 교육과정을 담은 영상 결과물을 선보이기도 했다.

문화예술연구소 플랫폼과 컨소시엄으로 진행된 'ART Project A to Z'는 공연예술과 미디어 창의 놀이 교육을 통한 융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12월 찾아가는 예술단

일정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맞춤공연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이 2021년을 마무리하며 12월에도 부산시내 곳곳에서 펼쳐진다.

- 12월 4일(토) 오후 2:00 부산도서관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12월 6일(월) 오후 1:00 자성대복지관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12월 6일(월) 오후 6:00 부산시민공원 빛축제 개막식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12월 8일(수) 오후 12:20 중앙동 관정빌딩 정오의 로비음악회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12월 10일(금) 오전 10:00 북구자활센터 연말 결과보고회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12월 14일(화) 오전 10:00 문현여자중학교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12월 14일(화) 오전 11:00 부산광역시의회 폐회연 개막공연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12월 14일(화) 오후 2:00 개성중학교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12월 15일(수) 오후 1:30 연제중학교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12월 16일(목) 오후 2:00 병무청 기념행사 공연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12월 16일(목) 오후 3:00 사하중학교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12월 20일(월) 오후 4:00 무역의 날 기념식 개막공연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12월 23일(목) 오전 10:00 서구장애인복지관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時代가 人間 에게 던지는 질문

人間界

×
×
×

문의 채널

2022년 부산시립극단 장막 희곡 공모

응모자격

제한없음 (단, 미발표 순수 창작품에 한함)

공모부분

창작 희곡 (원고지 250매 이상으로 대극장 공연이 가능한 작품)

접수기간

2022. 7. 11.(월) ~ 7. 29.(금) 17:00까지

제출서류

[별지1] 공모 신청서 1부

[별지2] 작품의도 및 줄거리 1부

[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4] 창작 희곡 원고 1부

(한글파일 혹은 워드파일로 표지 작성 후 함께 제출)

접수방법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혹은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0308side@bscc.or.kr

우 편 접 수: 2022. 7. 29.(금)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불가)

단, 공모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로 마감시간 연수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대연동 848-4)

부산시립예술단 시립극단 담당자 박지현 앞

최종발표

2022년 8월 중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c.or.kr) 공지 및 개별 유선통보

시상내역

당선작 1편 상금 3,000만 원

*시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당선자 부담

유의사항

- 저작권 등의 문제 발생 시 당선 취소 및 표창, 수상금 회수 조치

-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응모한 원고 및 자료에 대한 반환 및 비용청구 불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폐기 예정)

- 공연 제작시, 필요에 따라 작품 수정/변경 가능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작품이 없을시 수상하지 않음

문의

- 부산시립극단 051)607-3127

- E-mail : 0308side@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
시즌프로그램
2022. S/S

BSCC
Season Program
2022.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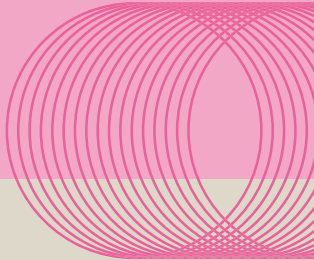
BSCC

SEASON

PROGRAM

2022.S/S

2022 BSCC S/S 시즌 프로그램 시리즈 기획



BSCC
Season Program
2022.S/S

클래식 음악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Da Capo> 1.7.(금)~1.19.(수)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챔버홀
World Competiton Winner Series I 박재홍 3.19.(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orld Competiton Winner Series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5.6.(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orld Competiton Winner Series III 임지영&홍민수 7.22.(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orld Competiton Winner Series IV 레이 첸&선우예권 9.3.(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극·뮤지컬

NT Live Series I -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2.26.(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NT Live Series II -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4.30.(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단편소설집 3.18.(금)~3.19.(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5.19.(목)~5.20.(금)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팬레터 5.28.(토)~5.29.(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우수작 <코마> 6.10.(금)~6.11.(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발레 무용

안은미 컴퍼니<드래곤즈> 3.4.(금)~3.5.(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5.13.(금)~5.14.(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국악 전통

김준수&하윤주&두번쨌달 <팔도유람> 4.1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콘서트

슬기로운 음악생활 - 이세준&홍경민&김중서, 스페셜게스트 왁스 1.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박종훈&웅산 재즈 콘서트 2.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트로트 빅쇼 - 신유&진성 4.2.(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빅마마 콘서트 4.30.(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가족 어린이

팔죽할멈과 호랑이 2.19.(토)~4.3.(일)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비발디의 사계 4.6.(수)~5.6.(금)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5.21.(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2022 BSCC S/S 시즌 패키지리켓

BSCC S/S Package Ticket

문화가 있는 날

부산 문화가 있는 날 - 배시시 명품극장 4.27.(수), 5.25.(수), 6.29.(수)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지역 프로젝트

시민트락축제 4.22.(금)~5.20.(금) 매주 금요일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무용·국악 패키지 (40%) (100매 한정) 3편 동시 구매 시 40%할인

⑧ 180,000 → 108,000 ⑤ 120,000 → 72,000

- 안은미컴퍼니 <드래곤즈>
-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 김준수&하윤주&두번째달 <팔도유람>

연극 패키지 (50%) 3편 동시 구매 시 50%할인

⑧ 90,000 → 45,000 ⑤ 60,000 → 30,000

- 단편소설집
-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 2021 부산신진페스티벌 우수작 <코마>

월드콩쿠르 우승자 패키지 (40%) (100매 한정) 4편 동시 구매 시 40%할인

⑧ 220,000 → 132,000

-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 앙코르
-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 임지영 & 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 레이 첸 & 선우예권 슈퍼 듀오 콘서트

NT Live 패키지 (30%) 2편 동시 구매 시 30%할인

40,000 → 28,000

- NT Live Series I -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 NT Live Series II -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패키지

- 7 개 공연 동시 구매 시 40%
- 6~4 개 공연 동시 구매 시 30%
- 3~2 개 공연 동시 구매 시 20%

※ 거장과의 만남은 패키지 제외

패키지 구성오픈 안내 및 유의사항

BSCC S/S Package Notice

티켓 오픈: 2021. 12. 8.(수) 오후 2시

패키지 구매 시 유의사항

- 패키지 예매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온라인예매: www.bscc.or.kr
 - 고객센터 전화예매: 051-607-6000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동일공연 중복선택 불가)
- 모든 패키지는 묶음구성이므로, 공연별 편당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구성공연의 첫 공연 시작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패키지 취소는 첫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전화취소만 가능합니다.
 - 단, 첫 공연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일 경우, 그 전주 금요일 5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패키지 구성 공연 중 일부 취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연은 패키지 할인율을 적용해 환불됩니다.
- 패키지 구성 공연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 예매가 조기매진 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 문의 및 전화예매 (평일 09:00~18:00)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607-6000(ARS 1번)
 - 한국어 문의(ARS 1번)
 - 외국어 문의(ARS 2번)

티켓예매방법

온라인 예매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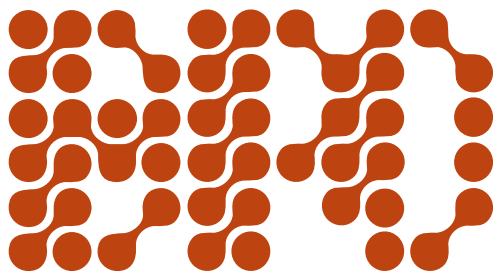
전화예매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는 ARS 1번, 외국어 문의는 ARS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티켓수령 관람 당일 고객센터, 또는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 변경 안내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또는 전화(Tel.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 종료 이후에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 하며, 예매 종료는 공연 전날 오후 5시입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当日은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전 ~ 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단, 공연当日은 불가)
공연 1일 전 예매 종료(17:00)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공연 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2022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상반기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최수열
올해의 예술가 양인모

BPO SYMPHONIC SEASON 202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Inmo Yang, Artist-in-Residence 2022

New Year's Concert 2022-The Maurice Ravel Cycle V 제583회 신년음악회

1월 21일 금요일 19:30 문화회관
지휘 최수열 / 피아노 김정원



Program

번스타인 / 캔디드 서곡
카푸스틴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한국 초연)
라벨 / 어릿광대의 아침노래
라벨 / 어미 거위 모음곡



BPO plays Mahler 제584회 부산시향의 말러

2월 16일 수요일 19:30 문화회관
지휘 이병욱

Program

말러 / 교향곡 제5번

Two Masterpieces of Prokofiev 제585회 정점

3월 11일 금요일 19:30 문화회관
지휘 최수열 / 피아노 문지영

Program

프로코피에프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프로코피에프 / 교향곡 제5번



L'Etranger-The Maurice Ravel Cycle VI 제586회 이방인

4월 1일 금요일 19:30 문화회관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



Program

코른골트 / 바이올린 협주곡
진은숙 / 수비토 콘 포르차 (한국 초연)
라벨 /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

Aurora borealis 제587회 오로라

5월 13일 금요일 19:30 문화회관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



Program

시벨리우스 / 바이올린 협주곡
시벨리우스 / 교향곡 제2번



Voyage-The Maurice Ravel Cycle VII 제588회 여정

6월 17일 금요일 19:30 시민회관
지휘 이민형
피아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Program

부산 출신의 신진작곡가 / 신작 (세계 초연)
라흐마니노프 / 죽음의 섬
라벨 / 고풍스러운 미뉴에트 (한국 초연)
라흐마니노프 /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BPO plays Dvořák 제589회 프라하 중앙역

7월 15일 금요일 19:30 문화회관
지휘 김선욱
첼로 한재민

Program

드보르작 / 첼로 협주곡
드보르작 / 교향곡 제7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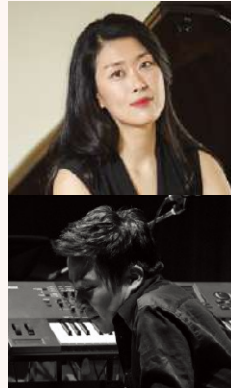
2022

부산시립합창단 시즌 프로그램



3 특별연주회 및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객원지휘 : Todd Jere Harper
일시 : 3월 4일(금) 19:30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5 가정의 달 특별연주회 및 제185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옛날 옛적에'

지휘 : 이기선
일시 : 5월 4일(수) 19:30
5월 5일(목) 10:30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작곡·출연 : 이진실, 이삼열 밴드 외



6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6회 정기연주회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지휘 : 이기선
일시 : 6월 23일(목) / 24일(금) 19:30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출연 : 부산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외



7 특별연주회 2022 Summer Fantasy '시간(時間) II'

지휘 : 임희준
일시 : 7월 21일(목) 19:30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출연 : 이삼열 밴드 외



9 특별연주회 및 신진지휘자 초청연주회

지휘 : 임희준, 김진영
일시 : 9월 15일(목) 19:30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0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7회 정기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지휘 : 이기선, 김광일, 김강규, 전상철
일시 : 10월 28일(금) 19:30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1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지휘 : 이기선
일시 : 11월 8일(화)~10일(목) 18:00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2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8회 정기연주회 하이트 '천지창조'

지휘 : 이기선
일시 : 12월 8일(목) 19:30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출연 : United Korean Orchestra
협연 : Sop. 김순영, Ten. 황병남,
Bar. 이광근, Bas. 문동환

2022년 부산시립예술단 상반기 시즌안내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부산시립무용단

• 신년기획 '홀路홀춤'

2. 1(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22 새해를 맞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우리 춤

• 제85회 정기공연 'THE 40'

5. 20(금)-21(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꿈과 희망을 버릴 수 없었던 그 시절

부산 40계단의 이야기

• Dancers and Masterpiece

별이 빛나는 <이정윤의 댄스살롱>

7. 22(금)-7.23(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춤과 이야기로 관객과 하나되어,

삶 속으로 예술을 끌어들이는 시간

• 제86회 정기공연 '춤.본색'

10. 21(금)-22(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춤의 가치, 본연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제214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

3. 3(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특별연주회 '만우절음악회'

4. 6(수)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특별연주회 '제47회 청소년 협연의 밤'

5. 3(화)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미래의 젊은 명인들의 무대!

• 제215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I'

5. 25(화)-26(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극단

- 제71회 정기공연 '바나아저씨'
3. 11(금)-1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특별공연 '미운오리새끼'
5. 13(금)-6. 4(토)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1'
5. 26(목)-28(토) 부산민주공원 작은방 공연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유망주음악회-Ensemble
2. 19(토) 17: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제67회 정기연주회 '이태리 여행'
3. 22(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5. 24(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유망주음악회-The Solist
6. 25(토)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특별연주회 '기량향상음악회'
2. 25(금)-26(토)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제161회 정기연주회 '부산에 불어온 바람(부부바)'
5. 28(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트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국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중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 J K 회장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해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사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중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 (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051-607-6123)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BSCC Business Membership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의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세요.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 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제시 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00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선 예매 서비스제공(일부공연 제외)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마감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조기마감)
-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가입단체 공연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 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할인이율 달라질 수 있음.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 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21년부터 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 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 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TEL. 051)607-6000 FAX. 051)607-611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특별한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VIP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2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2022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Da Capo

1월 7일(금)-1월 19일(수)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회차별 20매)

콘서트 ‘슬기로운 음악생활’

이세준&홍경민&김종서, 스페셜 게스트 왁스
1월 23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박종훈&웅산 재즈 콘서트

2월 13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NT-Live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2월 2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안은미컴퍼니 ‘드래곤즈’

3월 4일(금)-5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40매)

연극 ‘단편소설집’

3월 18일(금)-19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40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양코르’

3월 19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김준수&하윤주&두번째 달

팔도유람

4월 17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NT-Live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4월 30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5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Believe in Magic’

5월 21(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연극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5월 2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5월 13(금)-14.(토) 금 오후 7:30, 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2021년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우수작

연극 ‘코마’

6월 10일(금)-11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III

‘임지영&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7월 2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IV

‘레이 첸 & 선우예권 슈퍼 듀오 콘서트’

9월 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 1인 1~2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051-607-6116)

Busan Cultural Center
VIP

부산문화회관

플러스 **무료** 회원 가입 캠페인



일상을 컬러 **플**하게
문화를 파워 **플**하게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무료 회원인 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문자를 통한 공연 알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공연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고 푸짐한 경품 혜택도 누리세요!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가입기간

2021년 7월 1일(목) — 12월 31일(금)

참여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모바일

당첨자 발표

2022년 1월중, 당첨자 개별공지

경품내용

선물1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10만원 상당)
선물2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5만원 상당)
선물3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3만원 상당)
선물4	100명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2만원/모바일)
선물5	100명	해리스 카페 아메리카노 쿠폰(5천원/모바일)
선물6	100명	부산문화회관 월간지 <예술의초대> 1년 구독권
선물7	100명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플러스 회원 가입 신청서

QR코드로
간편가입



이름

아이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로그인 시 최초 비밀번호로 설정됩니다.

이메일

주소

이벤트 당첨 시 기재해 주신 주소로 경품 발송됩니다.

SMS/이메일 수신동의

플러스 무료 회원의 혜택인 공연 문자 알림과 뉴스레터 수신을 위하여 SMS/이메일 수신동의는 필수입니다.

정보제공 활용동의

제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재)부산문화회관의 회원 가입 및 공연정보 등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플러스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경품 추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재)부산문화회관 SNS 채널을 팔로우하고 공연, 전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해보세요!

각 채널을 팔로우하시면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의 공연, 전시, 아카데미 이야기들을 더 가까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SNS 공식계정에서만 진행되는 다양한 SNS이벤트들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QR코드를 찍어보시면 SNS계정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네이버블로그
[blog.naver.com/
bsscorkr](http://blog.naver.com/bsscorkr)



페이스북
[facebook.com/
busancultural
center](https://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인스타그램
[@bscultural
center_official](https://www.instagram.com/bssculturalcenter_official)



유튜브
배시시TV 구독



카카오톡스토리 채널
재단법인 부산문화
회관 추가



트위터
[@vivabscc](https://twitter.com/vivabscc)



BPO OPEN REHEARSAL CONCERT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2021. 12. 14^{TUE} 7:3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Busan Cultural Center

김택수 • 플래시!! (2008 / 2021 개작초연)
Texu Kim • Flash!! (2008 / Revised 2021)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작곡 김택수 Texu Kim, composer (Artist-in-Residence 2021)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2층 일반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제582회 정기연주회

DAWN AND DUSK

시작 아니면 끝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2021. 12. 16THU 7:3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Busan Cultural Center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4번

Beethoven • Piano Concerto No.4 in G major, Op.58

김택수 • 플래시!!! (2008 / 2021 개작초연)

Texu Kim • Flash!!! (2008 / Revised 2021)

시벨리우스 • 교향곡 제7번

Sibelius • Symphony No.7 in C major, Op.105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피아노 최희연 HieYon Choi, piano

작곡 김택수 Texu Kim, composer (Artist-in-Residence 2021)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Misaishi Joe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1.12.26.일. PM5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E CLASSIC



즐거로운 음악 생활

2022. 1. 23 (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특별게스트



주최

부산문화회관



국제신문



주관

BLUEDOT

문의 및 예매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고객지원센터(051-607-6000, ARS 1번)

입장연령 초등학생 이상 입장료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10% Discount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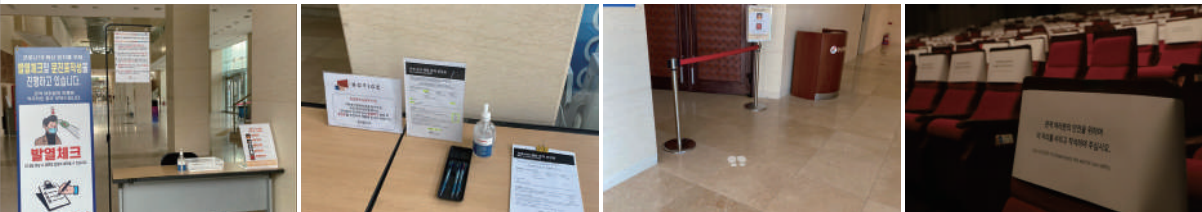
1만원 썸머니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 부산문화회관 공연장
이용수칙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한 공연장 이용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관객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공연장 입장 전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마스크 미착용 시 공연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개인 마스크를 필히 착용 후 방문해주세요.
- ✓ 티켓을 직접 절취하신 후 티켓의 왼쪽 부분(또는 작은 쪽 부분)을 수표함에 직접 넣어주세요.
-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객석'에 맞게 지정된 좌석에 착석바랍니다.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1. 12.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Food & Coffee

- | | |
|------------|-----------------|
| ① 612-9566 | ⑪ 070-755-2188 |
| ② 624-9776 | ⑫ 611-3973 |
| ③ 626-7111 | ⑬ 908-1111 |
| ④ 611-4241 | ⑭ 625-9402 |
| ⑤ 626-4448 | ⑮ 626-2292 |
| ⑥ 622-7412 | ⑯ 010-3996-6498 |
| ⑦ 611-3589 | ⑰ 623-0772 |
| ⑧ 628-8009 | ⑱ 628-3832 |
| ⑨ 621-7040 | ⑲ 714-3559 |
| ⑩ 621-5788 | |

Music & Art / etc.

- | |
|----------------|
| ① 868-3311 |
| ② 868-3311 |
| ③ 625-7275 |
| ④ 628-2592 |
| ⑤ 622-1456 |
| ⑥ 621-6669 |
| ⑦ 626-7900 |
| ⑧ 080-337-3370 |
| ⑨ 622-9722 |
| ⑩ 625-8704 |

COUPON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정식 1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대연스포츠헤터 킹스볼링장 1층
051)714-3559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우 표

받는 사람

이 름

주 소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개선해야 할 점은?



2021

12

DECEMBER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Exciting Journey

설레는 여정

바이올린 | 신지아
피아노 | 강형은

1.7(토) 19:30 중극장



Meet the Maestro

거장과의 만남

김남윤 마스터클래스

1.11(화) 15:00 챔버홀



Invitation from Passion

열정으로의 초대

1.12(수) 19:30 챔버홀

엔칸토 트리오
아피레 콰르텟
앙상블 플리르
콰르텟 마넬리



From Antique to Modern

앤티크부터 모던까지

소프라노 박은주 키보드테너 김대경 피아노 전해란
바이올린 김동욱 비올라 최영식

현악 4중주 | 바이올린 이현우, 나승준 비올라 조우태 첼로 조명환

1.13(목) 19:30 챔버홀



2022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다시, 처음

Da Capo

2022 BUSAN CHAMBER FESTIVAL

2022. **1.7** FRI - **1.19** WED

평일 | 19:30 / 주말 및 공휴일 | 17: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중극장

예술감독 김동욱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Beyond Frame

부산, 경계를 넘어

브람스 피아노 5중주 | 바이올린 김동욱, 조무중

비올라 황여진 첼로 조형준 피아노 황성훈

슈베르트 현악 3중주 | 바이올린 조혜은 비올라 김가영 첼로 홍승아

슈만 피아노 4중주 | 바이올린 임병원 비올라 최영식 첼로 이명진

피아노 김미현

1.14(토) 19:30 중극장



Busan's Culture & Future

부산의 문화와 미래

1.15(토) 17:00 중극장



Romantic Companion

낭만 동행(同行)

목관 5중주 | 플롯 이주형 오보에 고관수
클라리넷 장재혁 바순 장정호
오른 손승용 피아노 김영실
혼트리오 | 호른 이석준 바이올린 이석중
피아노 계명선

1.18(화) 19:30 챔버홀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

바이올린 김남훈, 김택우
비올라 김상진, 배은진
첼로 김민지, 김소연
피아노 김정권

1.19(수) 19:30 중극장



| 티켓 | 3/2/1만원(공연별 상이) | 예매 |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 문의 | 051.607.6000(ARS 1번)



| 주관 | Marine7 A&M

| 협찬 | BNK 부산은행